

석사학위논문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과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The Relationship Between Ego-identity, Social Support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Activity Among the Youth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학전공

정 경 애

1999 년 8 월

#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과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지도교수 김 정 희

이 논문을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1999 年 6 月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전공  
정 경 애

정경애의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을 인준함.

1999 年 7 月

심사위원장	인
심사위원	인
심사위원	인

<국문 초록>

##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과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정 경 애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학전공

지도교수 김 정 희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과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에 재학중인 청소년들로 교내 전통음악반에서 활동하고 있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참가자 309명과 비참가자 290명이 최종 분석자료로 선정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설문지로서 Dignan(1965)의 Ego-Identity Scale을 서봉연(1975)이 번안하고 보완하여 사용한바 있는 자아정체감 설문지와 Cohen과 Hoberman(1983)이 사용한 '대인관계 지각 질문지'를 김정희와 이장호(1987)가 번안하여 표준화시킨 사회적 지지 척도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통계 프로그램인 SPSS Windows 6.1버전을 이용하여 분석 목적에 따라 전산 처리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구체적인 통계기법은 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과 공변량분석(analysis of covariance) 그리고 다중회귀분석(standar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사용하였다.

이러한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자아정체감의 대인역할기대는 남자가 여자보다, 대인관계는 부(父)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높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물질적 지지와 평가적지지, 소속감지지는 여자가 남자보다, 가계수입이 높을수록, 부와 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으며, 기독교

와 천주교가 불교와 무교 보다 높다. 또한 자존감 지지는 가계수입이 높을수록 높다.

둘째,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 유무에 따라 자아정체감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전체 자아정체감과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자기수용, 자기주장은 전통음악활동 참가 집단이 비참가 집단 보다 높다.

셋째,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 유무에 따라 사회적 지지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전체 사회적 지지와 물질적지지, 그리고 자존감 지지는 전통음악활동 참가자 집단이 비참가 집단보다 높다.

넷째, 자아정체감은 사회적 지지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물질적, 평가적, 소속감, 자존감지지가 높다. 또한 자기주장이 높을수록 자존감지지가 높으며, 자기주장, 자기존재의식이 높을수록 물질적, 평가적 지지가 낮다. 그리고 자기존재의식이 높을수록 소속감, 자존감지지가 낮다.



---

※ 이 논문은 1999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 목 차

<국문초록>

I.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1
2. 연구의 목적	2
3. 변인 및 가설	3
4. 연구의 제한점	6
II. 이론적 배경	7
1. 전통음악	7
1) 전통음악의 특징	7
2) 전통음악의 교육적 가치	8
3) 청소년과 전통음악	10
2. 자아정체감	12
1) 자아정체감의 개념	12
2) 자아정체감의 구성요인	15
3) 청소년의 전통음악 활동과 자아정체감	18
3. 사회적 지지	19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19
2)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인	21
3) 전통음악 활동과 사회적 지지	23

Ⅲ. 연구방법 .....	28
1. 연구대상 .....	28
2. 조사도구 .....	29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	31
1) 조사 절차 .....	31
2) 자료 분석 .....	31
Ⅳ. 결과 및 논의 .....	33
1.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 .....	33
1)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자아정체감 .....	33
2)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 .....	36
2.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과 자아정체감 .....	38
3.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과 사회적 지지 .....	50
4.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 .....	57
Ⅴ. 요약 및 결론 .....	62
1. 요약 .....	62
2. 결론 .....	63
3. 제언 .....	64
참고문헌 .....	66
부    록 .....	71
ABSTRACT .....	79

# 표 목 차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	28
표 2. 전통음악활동 참가 유무 .....	29
표 3. 설문지의 주요 구성지표 및 내용 .....	29
표 4.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별 문항구성 및 문항수 .....	31
표 5-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평균, 표준편차 및 F검증 .....	34
표 5-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평균, 표준편차 및 F검증 .....	35
표 6.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평균, 표준편차 및 F 검증 .....	36
표 7.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전체 자아정체감에 대한 평균 및 표준 편차비교 .....	38
표 8.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전체 자아정체감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	38
표 9.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안정성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비교 .....	39
표10.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안정성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	40
표11.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목표지향성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비교 .....	40
표12.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목표지향성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	41
표13.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독특성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비교 .....	41
표14.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독특성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	42
표15.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대인역할기대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비교 .....	43
표16.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대인역할기대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	43
표17.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자기수용의 차이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비교 .....	44
표18.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자기수용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	44
표19.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자기주장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비교 .....	45
표20.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자기주장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	46
표21.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자기존재의식의 차이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비교 .....	46
표22.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자기존재의식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	47

표23.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대인관계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비교	47
표24.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대인관계에 대한 공변량분석	48
표25.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전체 사회적 지지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비교	50
표26.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전체 사회적 지지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50
표27.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물질적 지지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비교	51
표28.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물질적 지지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52
표29.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평가적 지지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비교	52
표30.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평가적 지지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53
표31.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소속감 지지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비교	54
표32.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소속감 지지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54
표33.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자존감 지지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비교	55
표34.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자존감 지지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55
표35. 자아정체감이 물질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중다회귀분석	57
표36. 자아정체감이 평가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중다회귀분석	58
표37. 자아정체감이 소속감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중다회귀분석	59
표38. 자아정체감이 자존감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중다회귀분석	60
표39. 자아정체감이 전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중다회귀분석	61

## 그림 목 차

그림 1.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과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	4
--	---

# I. 서 론

## 1. 연구의 필요성

근래에 와서 민족적 주체성이 강조되고 전통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변하면서 전통음악의 올바른 전승 뿐 아니라 청소년들에게 좀 더 우리의 것을 아끼고 사랑할 줄 아는 태도와 자세를 길러줄 수 있는 기회의 장을 마련할 필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많은 학교에서 전통음악 활동이 정규 학과 시간 또는 방과후 과외 활동으로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전통음악 활동은 전통문화의 계승과 더불어 급격한 인격형성기에 있는 청소년들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열린 사회의 주역이 될 지금의 학생들로 하여금 다양성과 자율성 그리고 창의성을 갖춘 조화로운 인간으로서 충분하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도록 지도한다면 자아정체성의 발달과 사회적 지지를 받는 올바른 청소년 상을 재정립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청소년기에는 외부세계와 접함으로써 사회에 동화되고 활동하는 시기인 만큼 그들이 속한 가정과 학교집단에서 감정적, 정서적으로 안정된 분위기가 요구된다. 이 시기는 자아에 대한 정체성에 눈을 뜰 때로서 자신이 무엇을 하고 무엇을 원하는가를 생각하는 단계이다. 이러한 변화의 시기에 전통음악활동은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으며, 타인들로부터 사회적 지지를 받음으로써 여러 가지 문제점을 극복하고 올바른 인격형성에 도움을 줄 것이다.

청소년의 전통음악 활동에 관한 선행연구들로는 악기의 활용을 중심으로 한 연구(김미숙, 1996; 김영선, 1996 등)와 전통음악 지도법에 관한 연구(김을갑, 1997; 김종복, 1997; 권진미, 1997등)가 많다. 그러나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에 대한 연구는 양적, 질적인 면에서 미미한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전통음악활동이 청소년의 성장에 미치는 인과적 관계에 대한 연구는 규명되어야 할 과제이다.

한편 사회적 지지에 대한 관심은 Cassel 등(1976)이 논문제목으로 사용하면서 관심이 높아졌으며, 가족, 친구, 이웃, 기타 사람 등에 의해 제공된 여러 형태의 원조를 의미하는데 널리 이용되어 왔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청소년들이 가정, 학교, 사회에서 자신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을 충분히 학습하고 사회로 진출할 때 미래의 사회는 제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리라 본다. 그리고 청소년의 자아정체감에 관한 선행연구들로는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심리적 변인인 가정환경, 학교생활과 사회생활 적응의 관계, 학업성취와의 관계, 여가활동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많이 연구되어지고 있다.

이는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의 개념이 청소년들에게 중요한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악분야에서 이들에 대한 연구가 미미한 것으로 볼 때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통음악활동과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파악한 연구는 음악 활동이 청소년의 정서함양에 도움이 된다는 비공리적 이론을 공리적 학문으로서 실증적인 규명은 의미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다.

이러한 접근은 청소년기의 사회화 과정에 대한 이해 및 학교 음악교육 프로그램의 적용 등 다양한 시도를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기여하며, 참여자 중심의 교육활동을 통해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심리적 압박을 받는 청소년에게 내적 자기 정화의 효과에 대한 검증과 아울러 전통음악의 가치를 높일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 2. 연구의 목적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전통음악 활동과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다. 이는 청소년 시기의 중·고생들이 전통음악활동을 통하여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사회적 지지를 굳게 하는 원인과 결과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설정한 구체적인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 첫째,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의 차이는 어떠한가?  
 둘째,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와 자아정체감의 관계는 어떠한가?  
 셋째,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는 어떠한가?  
 넷째,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는 어떠한가?

### 3. 변인 및 가설

#### 1) 연구변인

본 연구에서 설정한 관련변인들은 네 가지 인과적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demographics characteristics variable)을 성(性), 가계소득, 종교, 부/모의 교육수준 등 총 5개의 변인으로 구성하였다. 이러한 변인들은 전통음악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의 인과적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며, 선행연구들에서 중요하게 나타난다고 보고된 변인들로서 사회과학분야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개념이므로 별도의 정의가 불필요하다.

앞서 살펴본 이론적 근거로 하여 본 연구는 청소년시기인 중·고생들이 참가하고 있는 전통음악활동을 독립변인으로 설정하였으며, 사회적 지지를 종속변인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에 매개하는 변인으로 자아정체감을 설정하였다. 이러한 변인설정에 따라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과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 대하여 그림 1과 같은 연구모형을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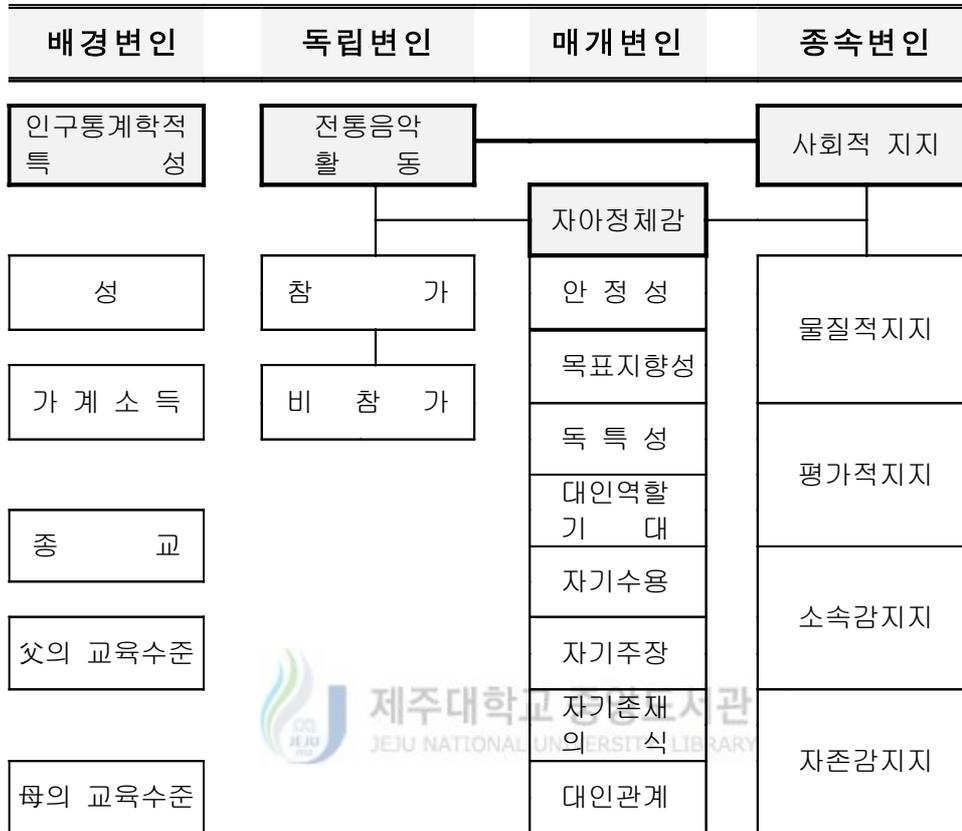


그림 1.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과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모형

## 2) 연구 가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과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앞에서 설정한 연구 변인의 관계모형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 자아정체감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1.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 안정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2.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 목표지향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3.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 독특성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4.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 대인역할기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5.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 자기수용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6.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 자기주장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7.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 자기존재의식은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2-8.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 대인관계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3.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 사회적 지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3-1.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 물질적 지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3-2.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 평가적 지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3-3.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 소속감 지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3-4.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 자존감 지지는 차이가 있을 것이다.
- 가설 4. 자아정체감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1. 자아정체감은 물질적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2. 자아정체감은 평가적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3. 자아정체감은 소속감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가설 4-4. 자아정체감은 자존감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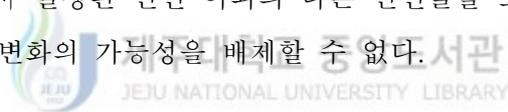
#### 4.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과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다음과 같은 제한점이 있다.

첫째, 본 연구의 연구대상은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로 한정하므로 전국적 추세와는 다를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주의가 요구된다.

둘째,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과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 대한 분석을 횡단적 방법으로 실시한 것임으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독립변인과 종속변인간의 인과적 관계는 시간적 선후 관계보다는 이론적 모형에 의존한다는 제한점을 가지고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 설정된 변인 이외의 다른 변인들을 고려하지 못한데서 발생할 수 있는 인과적 변화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 II. 이론적 배경

### 1. 전통음악

#### 1) 전통음악의 특징

인간은 문화적인 수단을 통하여 환경에 적응하면서 독자적인 삶을 영위하고 있다. 우리의 전통문화 중에서 전통음악은 수천년 동안 우리 겨레와 함께 생활하면서 그 맥을 면면히 이어온 귀중한 문화 유산인 것이다. 전통음악이란 서양음악에 대응하는 말로써 우리 민족 음악 전체의 호칭인데 요즈음은 일반적으로 전통음악을 정악과 민속악 두 가지로 분류하고 있다. 이 방법은 서양 음악을 클래식과 팝음악으로 나누는 방법과 비슷하여 정악은 ‘바른(正)음악’이란 뜻으로 궁중이나 상류 지식계층의 음악이었으며, 민속악은 일반 서민이 생활 속에서 즐기던 음악이다<sup>1)</sup>. 우리 전통음악은 오묘하고 깊은 운치를 품고 있으며 독특한 미분음과 변화 무쌍한 장단의 운율은 서양 음악에서는 느낄 수 없는 것이다. “전통음악은 장단이 없는 것으로부터 복잡한 장단의 복합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그러나 대개는 일정한 장단에 맞추어 노래하거나 연주하게 되어 있다.”<sup>2)</sup>

전통음악에서 가락을 뒷받침해주는 장단의 흥겨움은 전통음악의 가치이며 특징이다. 1고수 2명창이란 옛말은 우리 음악에 있어 장단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나타내주는 적절한 표현이라 하겠다. 이러한 점에서 전통음악의 특징을 살펴보면,

첫째, 가락과 함께 우리 음악의 중요한 요소가 되는 장단은 음악의 맺고 푸는 흐름으로써 적절한 음악적 긴장과 이완을 생성시키고 신명이 나게 하여 우리 음

---

1) 이성재(1994) 『재미있는 국악길라잡이』 서울:서울미디어. p.27

2) 장사훈, 한만영 공저(1975). 『국악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p.27.

악의 맛을 창출한다. 대개 장구나 북으로 표현되며 우리 음악의 모든 장르에서 소용된다.

둘째, 한 박의 리듬을 3등분하는 3연음에 의한 음악은 어깨를 덩실덩실하게 하여 춤을 추게 만들며, 때로는 차분히 흥얼거리게도 한다.

셋째, 우리 음악은 고운 소리를 얻기 위한 소리 가공의 단계를 최소화하여 자연의 소리에 가까운 소리와 빛깔을 추구한다. 악기의 재료는 거의 가공하지 않는 자연물을 그대로 이용해 자연의 소리 자체의 울림을 존중하고 있다.

넷째, 우리 음악은 주로 공동체적인 합주 중심이면서 개별적인 융통성을 허용한다. 대부분이 합주로 되어있으며 산조나 판소리에서도 반주자와의 호흡이 중요하듯이 공동체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리고 합주곡을 독주곡으로 바꿔서 연주해도 가능한 점과 시나위 음악에서 각 악기의 독립적인 흐름을 존중하는 것은 개별성을 설명해주는 좋은 예이다. 이렇듯 합(合)과 별(別)의 조화는 우리 음악을 더욱 의미 있게 만들고 있다.

다섯째, 우리 음악은 변통성을 귀하게 여긴다. 우리 음악은 무궁한 변화성에 그 특이한 맛을 담고 있는데, 특히 판소리나 산조에서는 스승으로부터 배운 음악이라도 변화시켜 자기의 음악으로 만들어야 그 생명력과 가치가 인정된다. 그리고 연주자가 연주할 때의 마음 상태에 따라 새로운 음악이 만들어지는 즉흥적이고 가변적이며 유연성이 강한 음악이다.

## 2) 전통음악의 교육적 가치

우리의 전통음악은 장단의 조화 속에서 그 멋을 한층 더 뽐내고 있는데 아름다운 가락이 장단과 어우러질 때 깊이와 생명력을 더해간다.

이러한 음악을 학생들에게 교육함에 있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전통음악에 대한 가치관을 심어주는 것이 필요하다. 입시위주의 주입식 교육과 서양음악 일변도의 수업을 받아온 청소년들에게 전통음악 교육은 우리 민족 음악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을 불러 일으켜 새로운 전통음악의 창조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

는 태도를 갖게 하는 것이다. 음악적인 의욕은 지니고 있으면서도 가창의 표현 수단에 열등의식을 갖고 있거나, 변성기에 접어든 청소년들에게는 기악 학습을 통하여 음악적인 의욕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다. 즉 악기 연주에 의해서 얻어지는 음색이나 연주 효과는 청소년들의 창조적인 의욕을 자극시켜 창으로서는 느낄 수 없는 새로운 즉흥을 낳게 하기도 한다. 또한 악기 연주는 청소년들의 음악적 능력의 균형 있는 발달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음악교육 중에서도 기악 교육은 독자성을 발휘하고 개성을 존중하면서도 합주라는 전체의 조화를 이끌어 내는데 있다. 이것은 개인의 존엄성을 인정하며 사회에 봉사하는 민주주의 원리에 합당한 것으로, 국가적으로 매우 큰 교육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본다.<sup>3)</sup>

기악 교육의 정신적인 가치는 인간의 품성을 풍요롭게 하고 악기를 통하여 음악의 이해를 증대시키기 때문에 새로운 교육에서도 고무적으로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날 교육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풍물놀이·가야금합주·취타대·관현악합주 등 전통음악 활동이 갖는 의미는 개인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사고에 젖어 있는 청소년들에게 대안적 의미로 건강한 우리 문화를 제시할 수 있으며, 나아가 새로운 교육 문화 창조의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민속악의 풍물놀이는 오묘한 조화에 의한 장단 변화의 숨씨가 태평소의 가락과 어울릴 때 우리 전통음악 특유의 맛은 더욱 살아나 우리를 즐겁게 하고 새로운 힘과 신명을 불러일으키게 한다. 특히 기품과 절도를 숭상하는 정악에서보다 자유분방한 변화의 세계를 생명으로 하는 민속악에서의 장단 변화는 때로는 아무리 명고(名鼓)라도 변화된 자신의 장단을 매번 똑같이 재현할 수 없을 정도로 천태만상의 형태를 이룬다. 그래서 이 변화는 장단을 치는 이의 음악적 능력과 그 감각, 순발력에 의해 얼마든지 무궁무진하게 자신의 세계를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된다. 음악, 춤과 놀이가 함께 어울어지는 풍물놀이는 민속악 적으로나 교육적으로 볼 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이 있다.<sup>4)</sup>

3) 이흥수(1992).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세광음악출판사, p245

4) 김우현(1984). 『농악교본』. 서울:세광음악출판사, p.16

가. 풍물의 음악은 원시적 충동성을 가지고 있어 집단적 신명을 가장 손쉽게 능률적으로 올릴 수 있다.

나. 간단한 편성으로 많은 인원을 움직일 수 있다.

다. 대동 놀이적 성격, 즉 춤, 재담, 놀이, 극적 요소 등이 결합되어 있어 풍부한 변용이 가능하다.

라. 진풀이 등을 통해 집단적 행동력과 의지의 표출이 가능하다.

마. 극소수의 지휘 체계로 통솔력을 행사할 수 있어 지휘자를 통한 단결심과 협동심을 기를 수 있다.

위의 시사점은 지극히 개인주의적인 현대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할 수 있으며, 풍물은 전통 그대로의 것을 계승하는데 한정되지 않고 재창조해야 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이기도 하다. 더불어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악기를 통한 장단의 연주 기능을 높이고 표현 활동을 통하여 장단의 멋을 체감케 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교육적 의미가 크다 하겠다.



### 3) 청소년과 전통음악

청소년기는 인간의 발달과정에서 자기 자신을 찾기 시작하는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청소년기에는 신체적 성장의 최성기를 이루며, 심리적·정신적으로 왕성한 성숙을 나타낸다. 이들은 유년기의 가정생활 중심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활동영역인 학교와 사회로 연결된 광역의 환경 속에서 생활하게 된다. 학교에서는 가정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교사로부터 학습활동과 생활지도를 받으며, 동료와의 경쟁과 협동 속에서 이질적인 사회성을 익히며 인성교육도 병행하게 된다.

그러므로 청소년기에는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일반적으로 이념적인 혼란, 반항과 이탈, 그리고 자아 파괴적인 행동 등과 같은 극단적인 과정을 더욱 선호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부정적이라기 보다는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 자신만의 새로운 영역을 구축하고자 하는 독특한 시도로 볼 수도 있다.<sup>5)</sup>

이러한 청소년기의 신체적, 인지적, 정서적, 사회적 측면 등에서 급격한 변화와 발달을 간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들은 신체적으로 대단히 빠르게 또 갑자기 성장한다. 이 시기에 발달한 신체 및 운동능력, 성적(性的)능력은 인간의 모든 활동에 기반이 되며, 사회생활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둘째, 청소년들은 신체가 변하는 것처럼 정신도 변한다. 즉, 청소년기의 사고(思考)는 성인과 더욱 유사해져서 객관적, 논리적, 비판적으로 된다.

셋째, 청소년기는 자아정체감을 확립해 가는 시기이다. 청소년은 이전과는 달리 자신의 존재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한다. 이 시기의 고민과 갈등의 해결 및 극복은 청소년들의 자아정체감 확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넷째, 청소년기는 성적 성숙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생식기관의 발달로 성호르몬의 분비가 시작되고, 체형이 변화되어 남자는 보다 남성다워지고 여자는 보다 여성다워진다.

다섯째, 청소년기는 사회성 발달이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즉, 사회적 관계와 사회적 관심이 많아 그 행동이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시기이다. 아울러 사회적 현상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는 때이다(청소년 심성수련 프로그램, 1998).

이러한 과도기에 놓여 있는 청소년은 다양한 태도, 이중적인 가치, 이상과 현실 속에서 갈등을 경험하게 된다. 그리고 청소년들은 그들의 자아의식의 생성 때문에 새로운 인성적 욕구를 갖게 되는데 그들의 대표적인 욕구는 생리적 욕구와 인격적 욕구이다. 전자는 식욕, 수면, 휴식, 활동, 성욕 등을 말하며, 후자는 지위, 독립, 성취, 호기심, 안정 등에 대한 욕구들인데 청소년들은 이러한 인격적인 욕구가 흔히 충족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럴 때마다 욕구불만 단계를 거치며 발달 또는 변화(김성수 외, 1994)하게 된다. 청소년기는 모든 발달이 완료되는 시기이다. 특히 이시기에는 성적발달이 촉진되고, 나에 대한 의시과 타인에 대한 의

---

5)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p.228

식이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 가는 사회성 발달이 급격하게 이루어지는 시기이다. 이 시기에는 인생, 문학, 연애, 영화, 음악, 스포츠 등 여러 분야에 많은 관심이 쏠리며 사회와 더불어 행동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깨닫게 되는데 이와 같은 태도는 사회 일원으로서의 가치의식을 가지며 이상주의와 결부해서 사회 정의 실현의 감성이 강하게 작용하게 된다.<sup>6)</sup> 음악이 인간에게 심리적 생리학적으로 크게 작용한다는 것은 역사적 과학적으로 잘 알려진 바 있다. 심리학적 효능을 보면 음악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지속시키는 효능을 가지며, 기분을 전환시키고 긴장을 푸는 역할을 한다. 또한 생리학적인 영향으로 음악은 노여움이나 증오의 감정을 해소시키기도 한다. 특히 음악은 청소년들의 정신세계를 풍요롭게 하며, 이상의 구현을 가능하게 하는 힘을 갖고 있으므로 더욱 음악을 사랑하며 생활화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같이 음악을 생활화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의 하나가 전통음악 활동인데 이는 현재 학교나 사회단체에서 이루어지는 전통음악 활동은 여럿이 함께 하는 집단활동으로 개인이 표현하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느끼게 함으로써 좀 더 음악적인 생활과 밀착시키고 감각을 기르게 하는 활동이기 때문이다.

## 2. 자아정체감

### 1) 자아정체감의 개념

청소년기에 형성해야 할 발달과업 중에 “자아정체감(ego-identity)”이 있다. 이 ‘아이덴티티’(identity)란 말을 우리말로 옮길 때 정황에 따라 동일성, 주체성, 자기 정의, 존재 증명 등 여러 가지로 번역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서봉연(1975)의 집중적인 연구 이후, ‘정체감’으로 쓰여지고 있다. 우리 나라에서 ‘자아정체감’으로 번역이 된 ‘ego identity’의 어원을 살펴보면 identity란 말은 라틴어 identitas에서 유래된 것으로 ‘전적으로 동일한 것이다’, ‘그 사람에 틀림없는 본인이다’, ‘그것의

---

6) 김성곤(1989). “중학생의 의식구조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p.30

자기자신’, ‘정체’등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sup>7)</sup>

이 용어는 Erikson이 1950년대에 정신분석학적 자아심리학의 기본개념으로 처음 사용한 이래 정신의학, 심리학, 교육학 등의 분야에서 폭넓은 의미로 도입되어 인간이해의 한 개념적 틀로 발전되었다. Erikson<sup>8)</sup>은 개인을 사회 속에서 바라보는 심리 사회학적 접근을 하였는데 그에 의하면 정체성이란 자기의 연속성, 단일성 혹은 독자성이고 또 이와 같은 개인의 동일성에 대한 의식적인 감각이라고 하였다. 또한 성취와 같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며 고정적이거나 불변하는 것도 아닌 즉, 사회적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개선되어 가는 자신에 대한 현실감으로 보았으며, 평생 동안의 계속적인 발달로 보았다. 이 정의를 토대로 자아정체감의 의미를 동질성과 연속성을 가진 존재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자신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람임을 경험하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Erikson(1968)의 자아정체감은 자아지각의 안정성, 통합, 재인식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규정될 수 있으며, 일치감을 통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자아 정체감을 확립한다는 것은 나는 누구이며, 앞으로 무슨 일을 하고 싶고, 나의 가치관은 무엇인가에 관한 나름대로의 해답을 얻는 것이다. 즉 ‘나는 누구인가?’, ‘...로서의 자기’를 수시로 선택하기 위하여 자신에게 질문하고 그것들을 통합하면서 구체적인 대답을 발견하는 것을 뜻한다.

또한 Erikson은 그 정체감을 객관적 측면과 주관적 측면으로 나누어 말하고 있다<sup>9)</sup>. 객관적 측면은 심리 사회적 정체감으로서 자기가 관계되어 있는 집단과 사회에 대한 일치성을, 주관적 측면은 개별적 정체감으로서 시간의 경과 속에서도 자기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자각함과 동시에 자기의 동질성과 연속성을 타인이 인식한다는 사실의 자각을 뜻한다. 개인적 정체감이란 시간이 흐르거나 상황이 바뀌어도 자기자신이 여전히 동일한 존재로서의 자기자신임을 인식하는 것이라 했다.

---

7) 박아청(1995). 「아이덴티티의 탐색Ⅱ」, 중앙적성출판사, p.21

8) E. H. Erikson(1968),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W. W. Norton. p.219

9) E. H. Erikson(1965), "Identity," psychosocial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Mcmillan Company & press) Vo.7, p.61-65.

이에 비해 자아정체감이란 것은 개인적 정체감보다도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즉 자아정체감은 자기 자신이 동질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 자체에 대한 단순한 인식 이상의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Erikson(1968)이 지적한 것처럼 자아정체감이란 다르게 표현하자면 자기존재의 동질성과 독특성을 지속하고 고양시켜 나가는 자아의 자질(ego-identity)인 것이다. Erikson(1968) 이외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정체감에 대한 조작적 정의를 시도하여 왔는데, 자아정체감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Margaret<sup>10)</sup>은 ‘자신의 독특성에 대한 비교적 안정된 느낌을 갖는 것인데 즉 그것은 행동이나 사고 혹은 느낌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친숙한 것으로써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며, 이러한 자기 인식은 나를 보는 타인의 방식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개인의 자아정체감을 첫째, 인간성: 자신이 인간이라는 느낌. 둘째, 성별: 남성 혹은 여성이라는 느낌. 셋째, 개체성: 자신이 특별하고 독특하다는 것에 대한 인식. 넷째, 계속성: 시간의 경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사람이라는 인식의 네 개의 차원으로 분류하여 정의하였다.

Dignan<sup>11)</sup>은 자아 내에서의 갈등 즉 정체감과 역할혼미간의 갈등을 강조하는 심리 사회적 입장을 취하여 ‘자아 정체감이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 발달된 것으로 자기를 묘사해주는 자기상들의 복합체이며 生來的으로 미리 짜여진 어떤 機制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정의 대인관계에서 자기를 비추어 볼 수 있는 대상에서 추출되고 통합된 자기상 이라고 정의하고 그 구성요인을 자기의 감각, 독자성, 자기수용, 역할기대, 안정성, 목표지향성, 대인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Waterman<sup>12)</sup>에 의하면 지금까지 개발된 정체감 측정 도구들은 다음과 같은 것

10) A. L. Margaret(1985). *Adolescenc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Inc., p.1.

11) S. M. H. Dignan(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 No. 5, p.476-483.

12) A.S.Waterman(1982),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An extension of theory and a review of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V.01.18,

에 초점을 두고 있다. 즉 자기 정의의 명백한 인식, 목표, 가치, 신념에 대한 관여 (commitment), 관여의 시행을 위한 직접적인 활동, 정체감 선택의 다양한 범위에 대한 고려, 자기 수용의 범위, 개인적인 독특성, 자기 미래에 대한 확신 등이다.

Marcia<sup>13)</sup>는 자아정체감을 여러 가지 충동, 능력, 신념 및 개인의 생활사 등의 자체 발생적인 내적, 역동적 체계인바, 이는 곧 자기구조라고 정의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개인의 자기 구조는 정적인 개념이 아니고 동적 개념으로 파악되므로, 자기구조로서의 자아정체감의 발달은 자기통합성을 이룩하려는 심리기능들이 역동적으로 체계화되어 가는 과정이라는 것이다.

서봉연<sup>14)</sup>과 김성태<sup>15)</sup>는 자아정체감에 대하여 각각의 자기가 지니는 고유성 즉 '자기다움'과 그에 부합되는 자기통합성과 일관성을 견지해 나가려는 '의식과 무의식적인 노력'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자기 주체성'으로서 자기자신이 분리되어 있고 통일성이 있으며 계속 일관성이 있는 존재라고 보아 이를 확고히 지니게 되면 인간관계와 자기자신의 특질 및 고유성 그리고 소임을 정당하게 파악하여 행동하게 된다고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자아정체감이란 개인이 자기가 내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기 주체성과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본질적 특성 그리고 성격의 연속성을 유지하려는 의식적·무의식적인 노력이라고 정의하였다.

## 2) 자아정체감의 구성요인

Erikson<sup>16)</sup>에 의하면 자아정체감의 발달은 출생 초기부터 시작되어 일생동안 계속되는 과정으로 스스로 정체의식을 느끼기 시작하는 것은 청년기이며 이때 자

---

No.3, 341-358.

13) J. E. Marcia, (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 551-558.

14) 서봉연(1975).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61

15) 김성태(1981), 『발달 심리학』, 법문사, p.251

16) E. H. Erikson(1963), 『아동기와 사회(Childhood and Society)』, 윤진. 김인경 역(1968), 중앙적성출판사, p.285-314.

신의 존재, 사회적인 역할, 자신의 목표와 스스로의 운명을 통제할 의도와 힘 등을 의식하게 된다고 한다. 자아정체감은 가정에서 시작하여 개인이 접촉하고 확대해 가는 사회적 대인관계에서 상호작용을 통하여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보았다. 그는 성격의 발달단계를 유아기, 유아동기, 취학전기, 학동기, 청년기, 성인초기, 성인기, 성숙기의 여덟 단계로 나누었다. 각 단계에는 이 시기에 발달 형성되는 생리적 감성과 개인에게 부여되는 사회적 발달과제가 있다고 했으며, 그에 따른 긍정적·부정적 발달 특징을 기술하고 있다.

김형태(1989)는 Erikson이론의 각 단계별 특징 및 공통점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각 단계마다 발달 과업과 위기가 있고 그에 따른 결정적 시기가 있으며, 둘째, 각 단계의 발달 과업과 위기는 대립되는 인격 특성으로 나타나며, 셋째, 각 단계의 위기 해결은 그 단계의 상호 대립되는 인격 특성의 연속적인 균형을 유지함으로써 해결되는 것으로 각 단계 특성 중 긍정적 측면만 강조하고 부정적 측면을 배제할 때엔 발달 장애가 일어나며, 넷째, 각 단계에서의 발달 위기의 해결은 다음 단계로의 순조로운 이행과 전체적인 발달의 가능성을 뜻하며, 다섯째, 인간은 모두 각 단계의 발달 과업을 스스로 성취하려는 동기를 갖는다고 하였다. Erikson은 청소년기에 나타나는 역할과업인 정체감 성취의 정도를 정체감 혼미(identity confusion)와 정체감 성취(identity achievement)로 개념지었다. 즉, 정체감 성취과업에 대해 관여의 대상이 너무 많고 실험적 시도의 변화가 너무 빈번하여 자신의 존재와 자기가 추구해 나갈 가치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을 때, 정체감 혼미를 겪게 된다. 그는 정상적인 발달에 있어서도 이시기에 정체감 위기가 도래하는 이유를 id, ego, super ego의 깨어진 균형을 ego가 재통합하지 못했거나 동일시의 재통합 과정에서 겪게 되는 갈등을 극복하지 못할 경우에 직면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이러한 자아정체감이 위기를 맞는 경우는 여러 가지로 설명된다. 친구와의 교분이 깨지거나 라이벌 관계 및 이성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자신의 미래에 대한 분명한 전망이 없을 때, 그리고 자신감을 갖게 되는 근거로써 자기 자신의 가치관들을 찾게 될 때에도 발생한다고 하였다. 또한, 자기가 자기를

보는 관점이나 자신의 이상향과 현재 자신의 모습, 그리고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보여지는 자신의 모습이 실제의 모습과 불일치 될 때 그 결과로서 자신의 역할에 혼란이 발생하고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것이다. 이렇듯 자아정체감은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설정되고 긍정적으로 혹은 부정적으로 확립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rikson의 이론에 토대 하여 Marcia는 정체감 형성과정에서 중요한 두 가지 요소인 위기(crisis)와 관여(commitment)의 유무에 따라 4가지 정체감 단계(status)로 세분화하였다. 여기서 위기관 의미 있는 여러 가지의 대안들 가운데 무엇인가를 선택하기 위해 본인이 직접 어떤 문제에 관해 고민하고 깊이 생각하는 의사 결정 기간을 말하며, 관여란 그 문제에 대해 무엇인가를 확실히 정하고 자신의 노력, 자질 등을 투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이러한 위기와 관여의 정도에 따라 자아정체감 성취(identity achievement), 유예(moratorium), 유실(foreclosure), 혼미(diffusion)로 구분된다. 그러나 이런 모형(paradigm)이 Erikson의 이론적 구성을 충분히 표현하여 정체감 형성과정을 완전히 나타내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정체감 형성에 있어서 Marcia가 이해하고 있는 정체감 단계는 연속적 개념이다. 그래서 개인은 자아정체감 즉, 약한 것과 강한 것으로 구분되는 인성구조를 달성함으로써 정체감 발달과업을 해결하게 된다. Marcia는 정체감 확산과 정체감 성취를 Erikson과 같이 양극단으로 보았고, 정체감 유실과 유예기를 양극단 사이에 있는 중간 발달단계로 보았다.

이러한 Marcia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Waterman<sup>17)</sup>은 다음과 같이 정체감 발달 양상을 설명하고 있다.

첫째, 정체감 혼미인 경우, 여러 종류의 정체감을 추구하기 시작하여 유예형으로 진전될 수도 있고, 제시된 가능성만을 그대로 따라감으로 유실형이 될 수도 있으며, 혼미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며 다른 변화를 시도하지 않을 수도 있다.

둘째, 유실형의 상태에서는 부모와 사회에 순응하다가 선택과 결정의 고민이

---

17) Waterman, A. S.(1982).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An extension of theory and a review of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18(3), 341-358

시작됨으로 유예형이 될 수도 있고, 지금까지의 가치관과 인생목적을 계속 유지하려 할 때엔 유실형이 지속되며, 지금까지 수용하고 지지했던 일들에 대해 의미를 잃고 가치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면 혼미형으로 후퇴한다.

셋째, 유예형의 상태에서는 분명한 목표가 설정되어 관여하기 시작하면 성취형으로 될 수 있으며, 여러 시도를 포기하고 혼돈으로 침체되면 혼미형으로 퇴보한다.

넷째, 성취형의 상태에서는 자신의 목표와 가치관에 대해 재검토와 회의가 생기면 유예상태로 되돌아가며, 지금까지의 관여와 성취 및 자기 존재에 대해 확신을 잃고 무력해지면 혼미의 상태로 회귀한다, 이와 같이 자아정체감은 각 단계별로 특성이 있으며 그 발달에 있어서도 각 양상이 다양하다는 것이다.

Marcia의 이론은 단순히 자아 정체감의 성립, 또는 미성립의 차원을 넘어서 다양한 모습을 설명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실제로 많은 연구들은 Marcia의 3영역 외에 다른 영역들을 추가시키고 있다, 대표적으로 Dignan은 자아정체감이란 자아의 갈등을 통한 사회적 상호 활동을 통해 형성되는 것으로 미리 어떤 機制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장과정에서 자기를 비추어 볼 수 있는 대상으로부터 반영되는 종합적인 자기 상이라고 하였고 이를 나타낼 수 있는 요인으로 자기감각, 독특성, 자기수용, 대인역할기대, 안정성, 목표지향성, 대인관계 등을 들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아정체감 특정도구(Ego-Identity Scale)를 개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서봉연이 Dignan의 자아정체감 특정도구를 번안하여 만든 8개 하위요인으로 구성하여 자아정체감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 3) 청소년의 전통음악 활동과 자아정체감

청소년기에 들어서면 자아를 느끼게 되며 자신의 존재를 사회 속에서 찾게 된다. 또한 청소년들은 이상을 추구하는 존재이다. 이런 청소년들은 자신의 이상 상에 결부시키기 위해 美를 찾게 되며 특히 음악 속에서 美의 이상 상을 찾으려 한다. 또 청소년들은 예술을 창조하는 힘으로서의 불안감과 절망감은 음악과 깊은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청소년들은 현실 속의 자기와 이상상속의 자기 사이에 있는 커다란 간격에 대하여 고민하고 불안해하며 그런 결과 주위에 대하여 공격적이 되거나 심한 열등감에 사로잡혀 절망적이 된다. 그리하여 이러한 특징은 음악의 생리적 기능을 구사해서 예술의 세계에서 그 배출구를 찾고자 하게 된다(이용일, 1979). 따라서 학생들에게 전통음악활동을 통한 정서함양, 음악적 가치, 음악적 음미, 음악적 판단력을 기초적으로 갖게 한다. 우리 전통음악은 주로 공동체적인 합주 중심이면서 개별적인 융통성을 허용하며 많은 부분이 합주로 되어있다. 이런 전통음악이 갖는 특성 때문에 독특성 및 자기주장이 강해진다. 또한 우리 민족 음악에 대한 깊은 애정과 애착심을 불러 일으켜 새로운 전통음악의 창조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태도를 갖게되고 자기존재의식이 강해지며 자아정체감 형성에 영향을 끼친다고 볼 수 있겠다.

#### 4. 사회적 지지



##### 1) 사회적 지지의 개념

인간은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사회화되고 성장 발달해간다. 사회적 관계는 인간의 전반적인 발달에 영향을 주는 중대한 환경적 요소로서 고려되어 왔고, 그 동안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아왔다. 사회적 지지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임상의학, 지역사회 심리학, 발달 심리학 분야에서 이루어져 왔으며(최진아, 1996), 초기에는 임상의학에서 관심을 두고 있었고 주로 심리, 신체적 질병에 대한 사회적 지지의 효과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다. 사회적 지지란 사회적 관계를 통해 개인이 타인들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자원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기에는 사랑, 존중, 인정, 상징적 또는 물질적 도움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지지의 개념은 이론적으로 도출된 것이 아니어서 연구자들마다 접근하는 개념 및 조작적 정의와 평가방법이 다양하다(Thoits, 1982)<sup>18)</sup>.

사회적 지지는 Cobb(1976)에 이르러서 개념 정의, 기능 및 효과가 보다 분명하게 규명되었고 학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정의하고 있으나 Caplan 등의 정의가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에 대한 학자들의 정의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Caplan(1974)<sup>19)</sup>에 의하면, 사회적 지지는 개인간 또는 개인과 집단간에 지속적으로 상호작용 하는 사회적 집합체에 의해 제공되는 정보적지지, 인지적지지, 유형적지지, 정서적지지 등으로 정의함으로써 지지적 행동에 대하여 강조하였다. 이는 정서적 제어력을 증진시키고, 지침을 제공하며, 그리고 정체감과 수행에 관한 환류를 제공하는데 기여한다. 즉, 의미 있는 타자는 위기 시에 심리적 자원을 동원하고 정서적 부담을 경감하도록 돕고, 과업을 분담해 주며, 나아가서 금전, 물질, 도구, 기술 및 인식적 자원을 제공하는데 기여한다.

Cobb(1976)<sup>20)</sup>은 사회적 지지를 한 개인이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믿게 하는, 가치롭게 여겨지고 있다고 믿게 하는, 대화할 수 있고, 상호의무가 있는 관계 망에 소속되어 있다고 믿게 하는 정보로서 정의하였고, Cassel(1976)<sup>21)</sup>은 역학적 입장에 기초하여, 가족과 같은 1차 집단에서 제공되는 사회적 지지가 신체적 질병을 예방한다는 건강보호적 효과를 제시함으로써 지각된 지지의 입장에서 개념을 정의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광의로 볼 때, 개인의 대인관계로부터 제공되는 다양한 자원으로 정의할 수 있다(Cohen & Hoberman, 1983)<sup>22)</sup>. 현재 사회적 지지 연구자들이 사회적 지지를 개념화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가설적인

---

18) P. A. Thoits(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3, 145-159

19) Caplan, G.(1974). *Support system and community mental health: Lectures on concept development*. New York: Behavioral Publication.

20)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a medi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5), 300-314.

21) Cassel, J.(1976). The contribution of the social environment to host resistance. *American Journal of Epidemiology*, 102, 2, 104, 2, p.107-123.

22) Cohen & Hoberman(1983). Positive event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지지자원에 대한 주관적 지각으로 개념화하는 것으로 지지의 기능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실제로 대인관계의 조직망을 통해 제공되는 지지로서 사회적 지지의 구조적 측면에 중점을 둔 것이다(Whethington & Kessler, 1986).

한편, 국내의 연구에서 박지원(1985)은 사회적 지지의 개념에 사회적 지지망, 지지형태, 지지욕구 등의 세 차원을 모두 포함시켰고, 이원숙(1992)은 사회적 지지의 개념을 근본적 욕구충족, 지지적 행동, 기능적·구조적 특성 등의 세 가지 측면에서 분류하고 그 중에서 지지적 행동을 사회적 지지의 개념으로 제시하였다. 김명숙(1995)은 지지제공자의 지지에 대한 인지적 평가인 지지지각, 실제로 아동이 받는 지지 행위 빈도인 지지실행, 그리고 지지 제공자의 수를 나타내는 지지망 등의 다차원으로 제시하였다. 위의 연구들을 검토해보면 사회적 지지는 단일한 개념보다는 여러 측면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받아들여져 왔으며, 이러한 개념들은 개인의 적응 및 발달에 대해 각기 독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인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인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지지를 제공하는 지지제공자 또는 제공되는 지지의 유형 및 이 두 요인들을 함께 고려한 연구들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지지제공자 요인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사회적 관계 망에 관심을 둔 경우로서, 아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부, 모, 형제자매, 교사, 또래 등의 하위요인을 보고하였다(Cauce et al., 1982; Dubow et al., 1989; Furman et al., 1985; Harter, 1985). 한편, 제공되는 지지의 내용 즉 지지유형의 경우, 연구의 초창기에는 단일 유형으로서 파악되는 경향이 있었다. Cobb(1976)는 보살핌, 존경, 가치인정 등을 포함하는 정서적 지지를 제시하였고, Cauce 등<sup>23)</sup>의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유형으로 정서적 지지를 제시하였다. 사회적 지지는 Cobb(1979)에 이

---

23) Cauce, A. M., Felner, R. D., Primavera, J., & Ginter, M. A.(1982). Social support in high risk adolescents: Structural components and adaptive impace.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0, 417-428

르러서 개념에 대한 정의, 기능 및 효과가 보다 분명하게 규명되었다.

Cobb<sup>24)</sup>은 사회적 지지를 생활주기의 관점에서 설명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의 독자적인 경험이라 하겠다. 그는 사회적 지지가 임신기간, 초기 아동발달기, 위기적 상황, 그리고 질병시기, 및 회복기 등과 같은 생애 사건과 전환시기에 매우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는 사회적 지지를 세 가지 구성요소로 첫째, 개인이 돌보아진다는 정보, 둘째, 가치를 부여·존중받는다는 정보, 그리고 셋째, 의사소통과 상호적 의무의 망에 소속된다는 정보로 규정하였다.

이들 연구 이후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의 유형이 다요인적 특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박지원, 1985; Barrera & Ainlay, 1983; Cohen et al., 1985). 박지원(1985)은 친밀한 상호작용, 사회적 상호작용, 지도, 물질적 도움, 행동적 원조, 피드백 등을 제시하였다. 그리고 Cohen과 Wills(1985)<sup>25)</sup>의 연구에서는 타인들이 한 개인의 가치나 소중함에 대해 확신하는 진술이나 행동을 하는 존중감지지, 공유된 활동을 통해 소속감을 느끼게 하는 동료애 지지,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는 충고와 지도를 해주는 정보적 지지, 공유하고 돕는 친 사회적 행동을 하는 도구적 지지 등의 4가지 요인을 제시하였으며, Cohen과 Hoberman(1983)<sup>26)</sup>은 사회적 지지를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 자존감지지, 소속감지지의 4차원으로 사회적 지지의 가용성에 대한 지각을 구성요인으로 보았다. 박지원(1985)은 정서적지지, 정보적지지, 물질적지지, 평가적지지 등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정서적 지지의 차원은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청의 행위를, 정보적 지지의 차원은 개인이 문제에 대처하는데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물질적 지지의 차원은 일을 대신 해주거나 돈, 물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시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포함한다. 그리고 평가적 지지의 차원은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 주거나

---

24) S. Cobb,(1979). Social support as a moderator of life stress. Psychosomatic medicine, 38, 5,300-14.

25) Cohen, S., & Wills, T. A.(1985). Stress,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2), 310-357

26) Cohen, S. & Hoberman, H.(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13, 99-125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행위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사회망 구성원을 통해 어느 정도 이와 같은 차원의 자원을 제공받을 수 있다고 지각하는가로 측정된다.

### 3) 전통음악활동과 사회적 지지

전통음악과 관련하여 청소년의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그러나 현대사회에 있어서 정신적 풍요로움과 함께 청소년시기에서의 특별활동으로 또는 자기 것을 찾는 의식이 증대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의 증가에 따라 전통음악활동의 실증적 규명이 학자들에게 관심이 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에 관한 연구는 안정된 대인관계와 개인의 적응간의 관계를 밝히려는 시도가 많다. 안정된 대인관계가 적응에 도움을 주는 과정을 설명하는 가설은 사회적 지지와 스트레스의 관계에 따라 둘로 나누어진다. 그 하나는 사회적 지지를 스트레스 사건의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매개변인으로 보는 입장이고, 또 다른 입장은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와는 무관하게 적응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는 것이다. 이 둘 중 전자는 사회적 지지의 완충효과 가설(buffering effect hypothesis), 후자는 주효과 가설(main effect hypothesis)이라고 불리운다.

사회적 지지의 역할을 강조하는 연구자들은 이러한 스트레스 적응과정에서 사회적 지지가 작용할 수 있는 두 지점을 제시하고 있다(Cohen & Mckay, 1983; Cohen & Wills, 1985). 그 하나는 객관적인 스트레스 사건과 주관적인 스트레스 경험간의 매개하는 기능이다. 즉 사회적 지지는 객관적 스트레스 상황이 주는 잠재적 위해를 재정의 하게 하고 상황의 요구에 대처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게 함으로써, 스트레스 사건에 대한 부정적 반응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다른 한 지점은 상황을 스트레스로 평가한 후에 정서와 관련된 반응이나 행동적 적응단계에서 상황을 재평가하게 하고 부적응적 반응을 억제, 적응적 반응을 촉진시킴으로써 기능 한다는 것이다.

1970년대에 예방심리학(preventive psychology)이 대두되면서 사회적 지지가 스트레스의 부정적 영향을 완화시키리라는 가능성이 연구되기 시작하여 1960년대까지의 정신의학이나 심리학 이론들은 정신 역동적 이론에 근거하여 사회적 환경을 개인이 적응, 동화 또는 회피하여야 하는 스트레스의 근원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사회적 지지를 적응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연구하기 시작함으로써 사회적 관계를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기본적인 사회화 과정으로 보게 되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도움이 되는 대인관계의 효과적인 요인이 무엇인가를 밝히고자 하였다.(Dean & Lan, 1977; Heller & Swindle, 1983).

지난 20년간 건강의 유지나 신체적 질병, 심리적 증상의 병인과 관련되어 사회적 지지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왔다. 많은 수의 연구들이 배우자나 친구, 가족 구성원이 심리적, 물질적 자원을 제공해 주는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좋은 신체적, 심리적 건강을 보인다(Broadhead et al., 1983)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여러 연구들에 따르면 모든 원인에 관계없이 사망률이나 다양한 부적응 증상은 사회적 지지가 비교적 낮은 사람에게서 더 높게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와 적응의 정적 관계는 스트레스와 관련된 연구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아왔는데, 개인의 사회적 지지체계가 스트레스 상황인 개인의 신체적, 심리적 적응에 주는 부정적 영향을 완화(Cassel, 1976; Cobb, 1976; Dean & Lin, 1978; Kaplan et al., 1977)시켜 줄 수 있음이 여러 연구들에 의해 보고되었다. 그리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몇몇 연구(Wolchik, Beals, & Sandler, 1989)에서는 사회관계망이 크고, 지지제공이 많을수록, 그리고 관계망 성원들이 상호 연관되어 있을수록 스트레스의 부정적 효과는 줄어들었음을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적 지지와 적응의 정적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이론적 모델에 대한 논의가 상당한 흥미를 끌어들였다(Cohen & Wills, 1985; Dean & Lin, 1977; Finnet et al., 1984; Krause, 1986; Williams et al., 1981). 그 하나는 주가설 효과(main effect hypothesis)로서 사회적 지지는 스트레스와 관계없이 전반적으로 개인의 긍정적인 정서를 증가시키고, 안정감, 환경에 대한 통제감에 영향을 줌으로써 일반적인 적응을 향상시킨다

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적 지지는 많은 청소년들의 활동 중에서 특히 특별한 의식이 요구되는 전통음악활동을 통해서 지지의 정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사회적 지지의 실제적 요소를 분석해 보면, 적어도 다음의 네 가지 자원을 제공한다. 자아의 감각,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 지식과 자원의 정보제공, 그리고 사회화의 기회 등이다.

사람들은 사회적 관계를 통해 정서적 위안, 물질적 원조와 서비스를 포함하는 사회적 지지를 받으며, 이와 같은 사회적 지지는 개인의 스트레스 수준을 감소시키고 건전한 사회관계를 형성케 하여 건강한 생활을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건강한 생활을 가능하게 하는 사회적지지 요소로서 전통음악 활동 참가가 얼마만큼의 효과를 띠고 있는지 앞에서 언급한 네 가지 사회적지지 자원 제공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첫째, 현대인에게 사회적 지지는 상호작용적인 환경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자신의 독특성을 인식케 한다. 사회적 지지체계 성원들과의 관계를 통해 그는 자신이 사고하고 느끼는 인간으로서 자율적이고 독특한 존재라는 자아발견을 얻게 된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볼 때, 전통음악 활동은 자아 표현, 자아 실현을 추구할 수 있게 해주는 하나의 효과적인 사회 문화적 양식으로 간주 될 수 있다.

둘째, 현대사회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업무 혹은 다른 어떤 일과 관련된 스트레스와 중압감을 경험하게 된다. 이러한 각종 스트레스의 누적은 질병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으며, 정서불안으로 인하여 일에 대한 의욕을 상실함으로써 사회 생활을 원만히 영위하는데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여러 증거들은 사회적 지지가 본질적으로 보호 적인 기제라고 말한다. 강한 사회지지 체계를 가진 사람들은 스트레스 인자에 보다 성공적으로 대처해 나간다고 보고하고 있다(Kalter, Schaefer, Lesowitz, Alpe구, & Kickar, 1988).

따라서 이러한 스트레스와 욕구불만의 배출구로서 규칙적이고 적당한 활동이 요구

되는데 그 활동으로 전통음악 활동이 필요하게 된다. 즉 전통음악 활동은 근심 및 걱정의 완화, 공격성의 억제, 죄의식의 경감, 열등감 해소 등의 효과적인 배출구로 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사회적지지 효과가 크다 하겠다.

“정서적으로 안정된 사람은 요구되는 일상생활을 보충하기 위하여 어떤 의욕적인 활동형태에 참가한다. 이러한 활동은 피상적인 즐거움 이상으로 심오한 심리적 욕구를 만족시킨다. 건전한 성격을 지닌 사람은 놀이를 할뿐만 아니라 자신의 놀이를 진지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놀이를 할 줄 모르고 이를 기피하는 사람은 불안하고 혼란한 사람이다.”라고 William(1948)은 말하였다. 따라서 적당한 활동은 사람들이 긴장으로부터 벗어나고 정서적인 안정을 취함으로써 일상생활을 의욕적으로 영위할 수 있게 해준다.

셋째, 전통음악 활동 참가를 통해서 확산시킴으로써 일상생활에 있어서 교양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되는데 이는 지식을 생산하기도 하고 교환하는 상호 지지적 활동이 되기도 한다.

넷째, 사회적 지지는 사회화의 기회를 제공해 준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사회적 기술이 결핍되어 원만한 사회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고립상태의 삶을 살아간다.

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타인과의 상호작용은 사회화의 기회로서 각종 인간관계에서 자기 가치를 강화시키는 효과를 갖는다. 음악활동이 전개되는 장소에서는 사람들간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며 다양한 인간관계가 형성된다, 사람들은 그 속에서 자신의 존재가치를 확인하며 타인과의 관계를 통하여 사회성을 함양하게 된다.

특히 전통음악활동 프로그램은 학생들에게 협동과 단결을 위한 실제적인 현장을 제공한다. 집단적 참가를 통하여 타인과 상호작용 하는 사회관계를 유지하며 집단규칙을 받아들이고 필요시에는 자신의 주장인 희망을 집단 참가자에게 피력함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부각시킨다. 청소년에게는 방과후 활동으로, 여름캠프 활동을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청소년들에게 일상생활 중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자아개념을 형성·강화시키고 대인관계 증진, 사회성 함양, 공통된 관심사에 대한 상호작용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준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활동은 궁극적으로는 심리

적·정서적 복리를 증진시킴으로서 결국 사회적 지지를 강화시키는 가치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 Ⅲ. 연구 방법

#### 1.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은 1999년 현재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를 모집단으로 하여 집락무선표집법(cluster random sampling methods)으로 선정하였다. 중학교는 전통음악 연구·시범학교를 중심으로 4개교를 선정하고, 고등학교는 제주도 교육청에서 특별지원하며 전통음악활동을 특별활동으로 하고 있는 4개교를 선정하였다. 이들을 대상으로 총 320명을 표집하였으며, 실제 분석에 포함된 연구대상은 참가자 309명이었다. 그리고 비교집단으로 전통음악 활동에 참가하지 않는 비참가자는 이들 학교에서 학년을 고려하여 선정된 320명을 표집하였는데 이중 분석자료로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제외한 연구대상은 290명이었다. 총 640부의 설문지중 응답하지 않는 설문지는 본 연구에서 제외시키고 실제 분석에 사용된 자료는 최종 599명이었다. 연구대상자의 구체적 특성은 표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N= 599)

배경변인		분류	빈도 (명)	백분율 (%)	배경변인		빈도 (명)	백분율 (%)
성	남		146	24.4	父의 교육 수준	중졸 이하	154	27.3
	여		453	75.6		고 졸	303	53.7
가계수입	100만원이하		127	24.7		대졸 이상	107	19.0
	100-200만원		232	45.1				
	200-300만원		105	20.4				
	300만원이상		50	9.7				
종 교	기 독 교		93	15.9	모의 교육 수준	중졸 이하	234	42.3
	불 교		269	46.0		고 졸	277	50.1
	천 주 교		50	8.5		대졸 이상	42	7.6
	무 교		17	29.6				

표 2. 전통음악활동 참가 유무

활동 유형	분류	빈도 (명)	백분율 (%)
	참 가	309	51.3
	비 참 가	290	48.7

## 2. 조사 도구

### 1) 설문지의 구성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과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포함한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에 관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설문지의 주요 구성 지표 및 내용은 <표 3>과 같다.

표 3. 설문지의 주요 구성지표 및 내용

구성지표	구성내용	문항수
인구통계학적 특성	성(性), 가계소득, 종교, 부/모의 교육수준	5
전통음악활동	전통음악 활동유무	1
자아정체감	안정성	8
	목표지향성	8
	독특성	8
	대인역할 기대	8
	자기수용	8
	자기주장	8
	자기존재의식	8
사회적지지	대인관계	8
	물질적지지	10
	평가적지지	11
	소속감지지	12
전체	자존감지지	11
		114

## 2) 측정도구

### (1) 자아정체감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설문지로서 Dignan(1965)의 Ego-Identity Scale을 서봉연(1975)이 번안하여 사용한바 있는 자아정체감 척도이다. 이 측정도구는 지각된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하여 폭넓게 사용되는 것으로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대인역할 기대, 자기수용, 자기주장, 자기존재의식, 그리고 대인관계 등 8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고 있다. 이 측정도구에 대한 Cronbach's  $\alpha$  계수는 .83으로 신뢰할 만한 측정도구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요인별로 각각 척도의 총점과 문항간의 상관계수를 산출한 Cronbach's  $\alpha$ 계수를 이용하여 자아정체감 측정도구에 대한 확인적 신뢰도 분석 결과 Cronbach's  $\alpha = .566 - .845$ 로 나타나 비교적 신뢰로운 설문지로 판단되었다.



### (2) 사회적지지

사회적 지지의 측정은 Cohen과 Hoberman(1983)이 사용한 대인관계 지각 질문지로서 지각된 기능적 지지의 가용성을 광범위하게 측정하도록 고안된 설문지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 사회적지지 설문지를 김정희와 이장호(1987)가 번안하여 표준화시킨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는 평가적지지, 물질적지지, 자존감 및 소속감 지지의 4개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하위변인별 신뢰도 계수는 .69-.84로 나타나 신뢰할 만한 설문지로 판단되었다. 또한 이 측정도구는 Likert형 5점 평정 척도로 평정되어 높은 점수일수록 사회적 지지를 높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확인적 신뢰도는 Cronbach's  $\alpha = .655 - .92$ 의 범위로 신뢰할 수 있는 설문지로 판단된다. 질문지의 하위척도별 신뢰도 계수는 <표 4>에 나타나 있다. 본 연구의 설문지에서 사용한 각 변인의 하위 영역별 문항 구성과 문항수는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의 하위변인별 문항구성 및 문항수

변인	하위변인	문항	문항수
자아정체감	안정성	1/16/23/30/44/51/57/58	8
	목표지향성	2/9/24/31/38/45/52/59	8
	독특성	3/10/17/32/39/46/53/60	8
	대인역할 기대	4/11/18/25/40/47/54/61	8
	자기수용	5/12/19/26/33/48/55/62	8
	자기주장	6/13/20/27/34/41/56/63	8
	자기존재의식	7/14/21/28/35/42/49/64	8
	대인관계	8/15/22/29/36/37/43/50	8
사회적 지지	물질적 지지	1/4/(10)/14/(17)/(20)/(32)/39/(43)/44	10
	평가적 지지	2/6/(9)/12/(21)/(25)/28/(30)/33/35/37/42	12
	소속감 지지	(5)/8/(11)/(15)/18/23/24/27/(36)/40/45	11
	자존감 지지	3/7/13/16/19/22/26/29/31/34/38/41	12

( )는 역채점 문항임.

### 3. 조사절차 및 자료분석

#### 1) 조사절차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과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표집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에 관한 설문지>를 배포한 다음 응답요령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응답하도록 한 후, 설문지를 회수하였다. 설문지 조사는 해당학교를 방문하여 담당교사에게 본 연구의 취지를 충분히 설명한 후 협조를 받아 실시하여 완성된 직후 회수하였다. 응답에 소요된 시간은 약 30분 정도였다.

#### 2) 자료분석

회수된 설문지는 분석자료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선택 검증과정으로서 이중기입 및 무기입한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된 후,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

료를 통계 프로그램인 SPSS Windows 6.1버전을 이용하여 분석 목적에 따라 전산 처리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구체적인 통계기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기술통계 및 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을 실시하였다.

둘째,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변량분석(analysis of covariance)을 실시하였다.

셋째,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공변량분석(analysis of covariance)을 실시하였다.

넷째, 자아정체감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위해 표준중다 회귀분석(standar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IV. 결과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과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문제로 첫째,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의 차이, 둘째,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와 자아정체감의 관계 셋째,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 넷째,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였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연구문제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와 논의를 하였다.

### 1.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지지

본 연구에서 설정한 5개의 배경변인에 따른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에 제시된 것과 같다. 먼저,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별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의 변인들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산출한 후,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여 집단간의 차이를 살펴보았다.

#### 1)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자아정체감

<표 5-1, 표 5-2>는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으로 설정한 성(性), 가계수입, 종교, 부/모의 교육수준 등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표 5-1, 표 5-2> 결과에 의하면 배경변인에 따른 자아정체감은 성(性), 가계수입,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性) 따른 자아정체감은 대인역할기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학생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자신이 어떻게 행동해야하고,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여학생보다 높게 인지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에 따른 자아정체감은 대인관계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저 학력일수록 대인관계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5-1.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평균, 표준편차 및 F검증

배경변인		분류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대인역할기대		
		M	SD	n	M	SD	n	M	SD	n	M	SD	n			
성	남	2.87	.44	130	3.00	.48	122	3.03	.42	129	2.99	.38	126			
	여	2.85	.39	438	2.96	.46	417	2.93	.42	427	2.85	.40	428			
	F값	.287			.533			6.604			11.783***					
가 계 수 입	100만원 이하	2.86	.42	121	2.94	.47	109	2.99	.39	114	2.84	.41	118			
	100~200만원	2.89	.38	223	3.00	.47	210	2.95	.42	217	2.88	.39	220			
	200~300만원	2.87	.43	98	3.00	.46	95	2.95	.47	99	2.99	.42	95			
	300만원 이상	2.73	.43	46	2.90	.52	47	2.93	.39	50	2.91	.42	44			
	F값	2.087			.769			.403			2.413					
종 교	기독교	2.83	.37	85	2.92	.39	83	2.92	.39	83	2.86	.36	85			
	불교	2.88	.42	258	2.98	.44	249	2.98	.44	249	2.91	.45	255			
	천주교	2.88	.43	46	3.01	.48	240	2.94	.37	48	2.83	.36	45			
	모교	2.82	.38	167	2.90	.47	43	2.92	.41	163	2.85	.36	158			
	F값	.935			1.320			.868			1.025					
부 교 육 수 준	중졸 이하	2.90	.41	145	2.98	.39	139	2.92	.39	142	2.85	.34	147			
	고졸	2.84	.40	294	2.96	.50	271	2.96	.45	285	2.87	.44	274			
	대졸 이상	2.85	.40	98	3.01	.47	98	2.96	.40	98	2.93	.37	101			
	F값	1.158			.421			.305			1.316					
모 교 육 수 준	중졸 이하	2.86	.37	227	2.96	.43	214	2.95	.38	216	2.83	.34	219			
	고졸	2.84	.41	260	2.98	.50	245	2.94	.44	259	2.90	.43	255			
	대졸 이상	2.91	.44	39	2.90	.45	38	2.96	.44	39	2.87	.39	41			
	F값	.555			.517			.069			2.003					

\*\*\* P < .001

※ 위에 제시된 F값은 투입된 한 개 배경변인 이외의 나머지 4개 변인의 효과를 통제 한 값임.

표5-2.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감의 평균, 표준편차 및 F검증

배경변인	분류	자기수용			자기주장			자기존재의식			대인관계			전체자아존중감		
		M	SD	n	M	SD	n	M	SD	n	M	SD	n	M	SD	n
성	남	3.11	.45	131	2.91	.42	134	2.93	.51	129	2.92	.44	123	2.94	.28	72
	여	3.06	.38	423	2.88	.35	436	2.96	.53	428	2.84	.42	417	2.92	.25	322
	F값	1.354			.650			.326			3.320			.258		
가계 수입	100만원 이하	3.10	.43	118	2.85	.36	123	2.99	.48	118	2.92	.43	113	2.94	.22	76
	100~200만원	3.07	.33	220	2.90	.35	224	2.97	.52	220	2.87	.42	214	2.94	.22	163
	200~300만원	3.09	.43	96	2.92	.40	102	2.94	.53	96	2.80	.42	92	2.93	.30	68
	300만원 이상	3.00	.43	43	2.95	.49	43	2.90	.57	49	2.75	.47	44	2.87	.32	32
	F값	.802			1.126			.459			2.305			.716		
종교	기독교	3.09	.38	86	2.85	.37	87	2.91	.56	85	2.86	.34	86	2.90	.19	51
	불교	3.09	.42	252	2.90	.40	257	2.98	.53	247	2.87	.40	244	2.94	.28	185
	천주교	3.00	.43	47	2.86	.29	45	2.90	.54	48	2.85	.45	46	2.90	.26	35
	무교	3.05	.35	159	2.90	.32	168	2.95	.49	167	2.84	.46	153	2.93	.22	118
	F값	.907			.498			.573			.100			.437		
부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06	.39	145	2.89	.34	146	2.96	.45	149	2.91	.44	140	2.94	.21	102
	고졸	3.09	.40	279	2.89	.37	292	2.96	.56	282	2.86	.41	272	2.92	.29	202
	대졸 이상	3.02	.35	97	2.87	.40	99	2.91	.56	97	2.75	.42	96	2.91	.21	70
	F값	1.106			.107			.393			3.900*			.238		
모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07	.39	221	2.86	.34	230	2.97	.50	222	2.88	.44	215	2.92	.22	164
	고졸	3.07	.37	252	2.90	.37	260	2.95	.52	254	2.85	.40	245	2.93	.28	174
	대졸이상	2.97	.46	39	2.96	.42	38	2.84	.67	41	2.74	.39	40	2.88	.20	31
	F값	.170			1.575			1.055			1.824			.454		

\* P < .05

이러한 결과의 의미는 대부분의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들이 자아정체감에 미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내는 것으로 성(性)과 부(父)의 교육수준만이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설정된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은 공변인으로서 적절함을 알 수 있다 하겠다.

## 2)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사회적 지지

<표 6>은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평균 및 표준편차 그리고 차이를 검증한 결과이다.

표 6.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평균, 표준편차 및 F검증

배경변인		분류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소속감 지지			자존감 지지			전체 사회적지지		
			M	SD	n	M	SD	n	M	SD	n	M	SD	n	M	SD	n
성	남		3.37	.64	134	3.35	.61	135	3.13	.50	130	3.13	.36	120	3.28	.42	107
	여		3.73	.64	433	3.78	.63	432	3.38	.48	431	3.17	.32	411	3.50	.42	380
	F값		32.039***			48.516***			24.888***			1.581			22.310***		
가계 수입	100만원 이하		3.43	.63	117	3.51	.64	121	3.22	.54	121	3.08	.33	110	3.31	.42	102
	100~200만원		3.61	.65	225	3.67	.65	225	3.30	.50	217	3.18	.30	217	3.44	.43	197
	200~300만원		3.78	.64	99	3.82	.61	97	3.33	.39	99	3.21	.36	89	3.55	.38	82
	300만원 이상		3.97	.62	49	3.90	.64	47	3.60	.50	47	3.22	.38	44	3.68	.45	42
	F값		9.897***			6.133***			6.285***			3.822**			9.711***		
종교	기독교		3.67	.66	84	3.74	.60	88	3.43	.52	90	3.18	.32	84	3.49	.43	76
	불교		3.63	.68	254	3.65	.67	252	3.30	.48	255	3.17	.32	235	3.44	.43	215
	천주교		3.85	.67	49	3.83	.65	48	3.45	.51	46	3.13	.32	47	3.55	.44	44
	무교		3.61	.61	168	3.65	.65	168	3.26	.49	160	3.17	.33	155	3.42	.41	144
	F값		1.791			1.350			3.438*			.229			1.351		
부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52	.64	145	3.59	.72	150	3.24	.50	148	3.13	.32	145	3.39	.45	132
	고졸		3.66	.62	284	3.66	.62	285	3.32	.48	280	3.16	.34	262	3.43	.40	238
	대졸 이상		3.81	.71	104	3.86	.63	100	3.46	.53	101	3.22	.27	98	3.59	.43	92
	F값		6.170**			5.257**			5.802**			1.845			6.733***		
모 교육 수준	중졸 이하		3.58	.65	222	3.64	.71	223	3.25	.52	223	3.15	.33	215	3.41	.45	194
	고졸		3.66	.62	258	3.66	.61	260	3.35	.48	254	3.17	.32	240	3.44	.40	219
	대졸이상		4.17	.57	42	4.08	.51	41	3.60	.44	41	3.20	.26	41	3.75	.32	40
	F값		15.291***			8.398***			9.059***			.604			10.896***		

\*\*\* P< .001 \*\* P< .01 \* P< .05

<표 6>은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으로 설정한 성(性), 가계수입, 종교, 부/모의

교육수준 등에 따른 사회적 지지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평균, 표준편차와 일원변량분석을 실시한 결과이다. 그 결과에 의하면 배경변인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성(性), 가계수입, 종교,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라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性)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물질적 지지, 평가적 지지, 소속감 지지, 전체 사회적 지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학생이 남학생보다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수입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하위 변인 모두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계수입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사회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교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소속감 지지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소년의 소속감 지지는 천주교를 믿는 집단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기독교, 불교, 무교 순으로 소속감을 많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의 교육수준에 따른 사회적 지지는 자존감 지지를 제외한 모든 변인에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물질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으며,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은 평가적 지지를 많이 받고 있는 것으로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변인은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변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설정한 이러한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변인인 성(性), 종교, 가계수입, 부/모의 교육수준 등은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의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통제하는 공변인으로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는 결과이다. 또한 청소년들에게 사회적 지지를 결정한 강력한 변인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2.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과 자아정체감

### 1)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와 전체 자아정체감

<표 7>은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서 전체 자아정체감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표 7.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전체 자아정체감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참가	2.9638	.2581	202
비참가	2.8894	.2656	192
전체	2.9275	.2449	394

<표 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통음악활동 참가자 집단(M=2.96)이 비참가 집단(M=2.89)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표 8>은 공변인을 투입하여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전체 자아정체감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결과이다.

표 8.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전체 자아정체감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추정치	F
공변인	.123	5	.025	.388
성	.007	1	.007	.117
가계수입	.087	1	.087	1.375
종교	.007	1	.007	.104
부교육수준	.005	1	.005	.073
모교육수준	.042	1	.042	.654
주효과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	.536	1	.536	8.440**
설명변인	.659	6	.110	1.730
잔차	19.361	305	.063	
전체	20.020	311	.064	

\*\* P < .01

이 표에 제시하였듯이 주효과는  $F=8.440$ 으로서 1%수준에서 참가유무에 따라 자아정체감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 즉 전통음악활동에 참가하는 집단이 참가하지 않는 집단보다 자아정체감을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결과이다.

### (1)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와 안정성

<표 9>는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서 안정성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표 9.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안정성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참 가	2.9045	.4137	292
비참가	2.8152	.3947	274
전 체	2.8613	.4067	566

<표 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통음악활동 참가자 집단( $M=2.90$ )이 비참가 집단( $M=2.82$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표 10>은 공변인을 투입하여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안정성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결과이다. <표 10>에 의하면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안정성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결과이다. 이 표에 제시하였듯이 주효과는  $F=4.171$ 로서 5%수준에서 참가유무에 따라 안정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 안정성을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결과이다.

표 10.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안정성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추정치	F
공변인	.813	5	.163	.972
성	.012	1	.012	.071
가계수입	.305	1	.305	1.822
종교	.274	1	.274	1.639
부교육수준	.100	1	.100	.598
모교육수준	.240	1	.240	1.435
주효과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	.698	1	.698	4.171*
설명변인	1.510	6	.252	1.505
잔 차	73.265	438	.167	
전 체	74.775	444	.168	

\* P < .05

(2)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와 목표지향성

<표 11>은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서 목표지향성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표 11.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목표지향성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참 가	3.0206	.4860	273
비참가	2.9309	.4465	264
전 체	2.9765	.4687	537

<표 1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통음악활동 참가자 집단(M=3.02)이 비참가 집단(M=2.93)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표 12>는 공변인을 투입하여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목표지향성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 분석결과이다.

표 12.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목표지향성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추정치	F
공변인	.152	5	.030	.134
성	.021	1	.021	.094
가계수입	.000	1	.000	.000
종교	.004	1	.004	.017
부교육수준	.122	1	.122	.539
모교육수준	.024	1	.024	.105
주효과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	1.006	1	1.006	4.433*
설명변인	1.159	6	.193	.851
잔 차	93.530	412	.227	
전 체	94.689	418	.227	

\* P < .05

<표 12>에 의하면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목표지향성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결과이다. 이 표에 제시하였듯이 주효과는 F=4.433으로서 5%수준에서 참가유무에 따라 목표지향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 목표지향성을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결과이다.

### (3)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와 독특성

표 13.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독특성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참 가	3.00	.43	285
비참가	2.91	.42	270
전 체	2.96	.43	555

<표 13>은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서 독특성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표 1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통음악활동 참가자 집단(M=3.00)이 비참가 집단(M=2.90)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표 14>는 공변인을 투입하여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독특성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 분석결과이다.

표 14.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독특성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추정치	F
공변인	.445	5	.089	.505
성	.170	1	.170	.966
가계수입	.198	1	.198	1.122
종교	.056	1	.056	.315
부교육수준	.023	1	.023	.130
모교육수준	.017	1	.017	.095
주효과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	.845	1	.845	4.798*
설명변인	1.290	6	.215	1.221
잔차	75.226	427	.176	
전체	76.517	433	.177	

\* P < .05

이 표에 제시하였듯이 주효과는 F=4.798로서 5%수준에서 참가유무에 따라 독특성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 독특성을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결과이다.

#### (4)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와 대인역할기대

<표 15>는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서 대인역할기대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표 15.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대인역할기대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참가	2.9188	.4265	291
비참가	2.8526	.3872	262
전체	2.8874	.4093	553

<표 1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통음악활동 참가자 집단(M=2.92)이 비참가 집단(M=2.85)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표 16>은 공변인을 투입하여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대인역할기대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 분석결과이다.

표 16.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대인역할기대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추정치	F
공변인	2.430	5	.486	3.069**
성	.843	1	.843	5.323*
가계수입	.410	1	.410	2.587
종교	.089	1	.089	.561
부교육수준	.235	1	.235	1.487
모교육수준	.024	1	.024	.153
주효과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	.553	1	.553	3.495
설명변인	2.983	6	.497	3.140
잔차	67.615	427	.158	
전체	70.599	433	.163	

\* P< .05 \*\* P< .01

이 표에 제시하였듯이 주효과는 F=3.495로서 참가유무에 따라 대인역할기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변인들의 영향정도는 성별이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 대인역할기대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결과이다.

(5)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와 자기수용

<표 17>은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서 전체 자아정체감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표 17>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통음악활동 참가자 집단(M=3.13)이 비참가 집단(M=3.02)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17.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자기수용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참가	3.1330	.3981	283
비참가	3.0167	.3896	269
전체	3.0763	.3979	552

표 18. 전통음악활동 유무에 따른 자기수용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추정치	F
공변인	.185	5	.037	.252
성	.003	1	.003	.023
가계수입	.055	1	.055	.375
종교	.064	1	.064	.439
부교육수준	.034	1	.034	.228
모교육수준	.041	1	.041	.277
주효과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	1.603	1	1.603	10.915***
설명변인	1.788	6	.298	2.029
잔차	62.576	426	.147	
전체	64.365	432	.149	

\*\*\* P < .001

그리고 <표 18>은 공변인을 투입하여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자기수용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결과이다. <표 18>에 의하면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자기수용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결과이다. 이 표에 제시하였듯이

주효과는  $F=10.915$ 로서 0.1%수준에서 참가유무에 따라 자기수용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 자기수용을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결과이다.

#### (6)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와 자기주장

<표 19>는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서 자기주장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표 19,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자기주장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참가	2.9240	.3965	296
비참가	2.8631	.3427	272
전체	2.8948	.3727	568

위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통음악활동 참가자 집단( $M=2.92$ )이 비참가 집단( $M=2.86$ )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표 20>은 공변인을 투입하여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자기주장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 분석결과이다.

<표 20>에 의하면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자기주장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결과이다. 이 표에 제시하였듯이 주효과는  $F=4.903$ 로서 5%수준에서 참가유무에 따라 자기주장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변인 역시 모교육수준에서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 자기주장을 다르게 지각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결과이다.

표 20. 전통음악활동 유무에 따른 자기주장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추정치	F
공변인	1.202	5	.240	1.71
성	.017	1	.017	.121
가계수입	.249	1	.249	1.778
종교	.104	1	.104	.740
부교육수준	.370	1	.370	2.646
모교육수준	.645	1	.645	4.608*
주효과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	.686	1	.686	4.903*
설명변인	1.888	6	.315	2.248
잔 차	61.428	439	.140	
전 체	63.315	445	.142	

\* P < .05

(7)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와 자기존재의식

<표 21>은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서 자기존재의식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표 21.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자기존재의식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 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참 가	2.9840	.5033	281
비참가	2.9243	.5584	274
전 체	2.9545	.5316	555

<표 2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통음악활동 참가자 집단(M=2.98)이 비참가 집단(M=2.92)보다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표 22>는 공변인을 투입하여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자기존재의식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 분석결과이다.

표 22. 전통음악활동 유무에 따른 자기존재의식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추정치	F
공변인	.444	5	.089	.324
성	.037	1	.037	.135
가계수입	.187	1	.187	.680
종교	.005	1	.005	.019
부교육수준	.105	1	.105	.384
모교육수준	.014	1	.014	.049
주효과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	.387	1	.387	1.412
설명변인	.831	6	.138	.505
잔 차	118.421	432	.274	
전 체	119.252	438	.272	

\* P < .05

이 표에 제시하였듯이 주효과는 F=1.412로서 참가유무에 따라 자기존재의식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되는 공변인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 자기존재의식은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결과이다.

#### (8)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와 대인관계

<표 23>은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서 대인관계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표 2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전통음악활동 비참가자 집단(M=2.87)이 참가 집단(M=2.85)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3.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대인관계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참 가	2.8496	.4345	276
비참가	2.8693	.4186	261
전 체	2.8592	.4265	537

<표 24>는 공변인을 투입하여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대인관계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 분석결과이다.

표 24. 전통음악활동 유무에 따른 대인관계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추정치	F
공변인	1.679	5	.336	1.932
성	.145	1	.145	.833
가계수입	.852	1	.852	4.899*
종교	.052	1	.052	.300
부교육수준	.105	1	.105	.603
모교육수준	.005	1	.005	.030
주효과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	.058	1	.058	.335
설명변인	1.737	6	.289	1.666
잔 차	71.960	414	.174	
전 체	73.697	420		

\* P < .05



이 표에 제시하였듯이 주효과는 F=.335로서 참가유무에 따라 대인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공변인들의 영향정도는 가계수입이 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 대인관계는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 결과이다.

위의 결과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전통음악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을 비참가자보다 높게 지각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는 결과이다. 따라서 자아정체감을 형성하는 활발한 시기인 청소년 시기에 있어서 전통음악활동은 정체감형성에 기여하는 중요한 자극요인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전통음악활동이 단순히 전통음악을 습득하는 기능적 학습장으로서 뿐만 아니라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에도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것이다. 특히 전통음악활동은 자발적 참여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특별활동이며, 자신의 자기 목적적 활동으로 이해되므로 전통음악이 갖는 특별한 의미는 이들의 정체성 형성에 이바지하

는 자원으로 전달되어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또한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자기수용 그리고 자기주장 등 자아정체감이 갖는 여러 요인들에서의 전통음악활동 비참가자보다 높게 나타남으로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해주는 실증적 근거라고 할 수 있다.



### 3.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과 사회적 지지

#### 1)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와 전체 사회적지지

<표 25>는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서 전체 사회적 지지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표 25>에 제시된 바와 같이 참가자 집단(M=3.52)이 비참가자 집단(M=3.39)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5.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전체 사회적 지지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참가	3.5244	.4388	246
비참가	3.3906	.4158	240
전체	3.4583	.4324	486

<표 26>은 공변을 투입하여 전통음악활동 유무에 따라 전체 사회적 지지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26. 전통음악활동 유무에 따른 전체 사회적 지지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추정치	F
공변인	10.435	5	2.087	12.630***
성	3.255	1	3.255	19.696***
가계수입	4.088	1	4.088	24.738***
종교	.199	1	.199	1.207
부교육수준	.029	1	.029	.175
모교육수준	.487	1	.487	2.949
주효과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	.484	1	.484	2.930
설명변인	10.919	6	1.820	11.014
잔차	62.955	381	.165	
전체	73.874	387	.191	

\*\* P < .001

이 표에 나타나 있듯이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서는 F값이 2.930으로 주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한편 동시에 투입된 공변인 F값이 12.630으로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변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性)과 가계수입이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전체 사회적 지지에는 이들 두 선행변인만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서 달리 지각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결과이다.

### (1)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와 물질적지지

<표 27>은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서 물질적 지지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표 27.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물질적 지지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참가	3.6548	.6606	564
비참가	3.7531	.6645	290
전체	3.5507	.6414	274

<표 27>에 제시된 바와 같이 비참가자 집단(M=3.75)이 참가자 집단(M=3.65)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28>은 공변을 투입하여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 물질적 지지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 나타나 있듯이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서 F값이 4.287로 주효과가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동시에 투입된 공변인 역시 F값이 18.210으로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변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과 가계수입이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물질적 지지에 이들 두 선행변인이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의 의미는 많은 선행변인이 물질적 지지를 높이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되는 결과이다.

표 28. 전통음악활동 유무에 따른 물질적 지지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추정치	F
공변인	24.895	5	4.979	13.210***
성	7.997	1	7.997	21.218***
가계수입	8.732	1	8.732	23.169***
종교	.121	1	.121	.320
부교육수준	.041	1	.041	.108
모교육수준	2.058	1	2.058	5.460**
주효과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	1.616	1	1.616	4.287*
설명변인	26.511	6	4.418	11.723
잔 차	165.080	438	.377	
전 체	191.590	444	.432	

\* P < .05 \*\* P < .01 \*\*\* P < .001

## (2)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와 평가적 지지

<표 29>는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서 평가적 지지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표 29.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평가적 지지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참가	3.7638	.6534	289
비참가	3.6066	.6469	276
전체	3.6870	.6544	565

<표 29>에 제시된 바와 같이 참가자 집단(M=3.76)이 비참가자 집단(M=3.61)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0. 전통음악활동 유무에 따른 평가적 지지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추정치	F
공변인	25.024	5	5.005	12.926***
성	14.556	1	14.556	37.593***
가계수입	5.435	1	5.435	14.036***
종교	.219	1	.219	.566
부교육수준	.038	1	.038	.098
모교육수준	1.072	1	1.072	2.768
주효과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	.716	1	.716	1.849
설명변인	25.740	6	4.290	11.080
잔 차	169.976	439	.387	
전 체	195.716	445	.440	

\*\*\* P < .001

<표 30>은 공변을 투입하여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 평가적 지지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 나타나 있듯이 전통음악활동 참가 유무에 따라서 F값이 1.849로 주효과가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동시에 투입된 공변인만이 F값이 12.926으로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변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과 가계수입이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평가적 지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의 의미는 전통음악활동 유무보다는 많은 선행변인들 중에서 성별요인 또는 가계의 경제적 수준이 평가적 지지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 (3)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와 소속감 지지

<표 31>은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서 소속감 지지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표 31.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소속감 지지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참가	3.3665	.5203	289
비참가	3.2879	.4794	270
전체	3.3285	.5020	559

<표 31>에 제시된 바와 같이 참가자 집단(M=3.36)이 비참가자 집단(M=3.29)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2>는 공변을 투입하여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 소속감 지지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이 표에 나타나 있듯이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서 F값이 .047로 주효과가 5%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동시에 투입된 공변인만이 F값이 10.250으로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변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성과 가계수입이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소속감 지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의 의미는 전통음악활동 유무보다는 많은 선행변인들 중에서 성별요인 또는 가계의 경제적 수준이 소속감 지지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판단된다.

표 32. 전통음악활동 유무에 따른 소속감지지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추정치	F
공변인	12.092	5	2.418	10.250***
성	4.155	1	4.155	17.610***
가계수입	2.622	1	2.622	11.112***
종교	.472	1	.472	2.002
부교육수준	.001	1	.001	.005
모교육수준	1.791	1	1.791	7.592**
주효과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	.011	1	.011	.047
설명변인	12.103	6	2.017	8.550
잔차	102.396	434	.236	
전체	114.499	440	.260	

\*\* P < .01 \*\*\* P < .001

#### (4)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와 자존감지지

<표 33>은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서 자존감 지지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를 나타낸 것이다.

표 33.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른 자존감 지지에 대한 평균 및 표준편차비교

구분	평균	표준편차	사례수
참가	3.2235	.3100	270
비참가	3.1119	.3414	260
전체	3.1687	.3302	530

<표 33>에 제시된 바와 같이 참가자 집단(M=3.22)이 비참가자 집단(M=3.11)보다 높게 나타났다. <표 34>는 공변인을 투입하여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 자존감 지지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의 결과를 제시한 것이다.

표 34. 전통음악활동 유무에 따른 자존감 지지의 차이에 대한 공변량분석

변산원	자승화	자유도	변량추정치	F
공변인	1.387	5	.277	2.659*
성	.319	1	.319	3.055
가계수입	.722	1	.722	6.924**
종교	.016	1	.016	.149
부교육수준	.100	1	.100	.954
모교육수준	.024	1	.024	.234
주효과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	1.034	1	1.034	9.916**
설명변인	2.422	6	.404	3.869
잔차	43.293	415	.104	
전체	45.714	421	.109	

\* P < .05 \*\* P < .01

이 표에 나타나 있듯이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서 F값이 9.916으로 주효과가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한편 동시에 투입된 공변인 역시 F값

이 2.659로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변인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가계수입만이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 자존감 지지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의 의미는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서 자존감 지지를 다르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전통음악 활동 참가집단이 비 참가집단 보다 자존감 지지를 높게 인식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4. 자아정체감과 사회적 지지

##### 1) 자아정체감과 물질적지지

<표 35>는 자아정체감이 물질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중다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표 35. 자아정체감이 물질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중다 회귀분석

변 인	B	Beta	SE B	T	Sig
대인관계	.067	.089	.042	.745	.457
대인역할기대	.009	.080	.006	.110	.913
독특성	-.036	.085	-.023	-.431	.667
자기 수용	.301	.087	.187	3.476	.001
안정성	.008	.092	.005	.090	.928
목표지향성	-.005	.099	-.003	-.047	.963
자기 주장	-.205	.073	-.169	-2.831	.005
자기존재의식	-.284	.084	-.188	-3.371	.001
(상 수)	4.084	.391		10.452	.000
MR =	.296	R <sup>2</sup> =	.087		
F =	4.486	Signif F =	.000		

이 표에 의하면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수용은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정적인 유의함으로 보여주고 있으나, 자기주장과 자기존재의식은 부적인 유의함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전체변량의 상대적 설명력은 8.7%(R<sup>2</sup>=.087)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 수준이 사회적 지지를 높여주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결과이다. 또한 자기수용의 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물질적 지지를 높게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자기주장과 자기존재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물질적 사회적 지지는 낮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2) 자아정체감과 평가적 지지

<표 36>은 자아정체감이 평가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중다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표 36. 자아정체감이 평가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중다 회귀분석

변 인	B	SE B	Beta	T	Sig T
대 인 관 계	.105	.091	.063	1.148	.252
대인역할기대	.130	.082	.090	1.584	.114
독 특 성	.026	.087	.016	.297	.766
자 기 수 용	.301	.089	.179	3.363	.001
안 정 성	.065	.095	.038	.688	.492
목표 지향성	.043	.105	.023	.410	.682
자 기 주 장	-.270	.074	-.214	-3.637	.000
자기존재의식	-.402	.086	-.258	-4.656	.000
상 수	3.682	.405		9.087	.000
MR = .339	R <sup>2</sup> = .115				
F = 5.986	Signif F = .000				

이 표에 의하면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수용은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정적인 유의함으로 보여주고 있으나, 자기주장과 자기존재의식은 부적의 유의함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전체변량의 상대적 설명력은 11.5%(R<sup>2</sup>=.115)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 수준이 사회적 지지를 높여주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결과이다. 또한 자기수용의 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평가적 지지를 높게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자기주장과 자기존재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평가적 사회적 지지는 낮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3) 자아정체감과 소속감지지

<표 37>은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인 소속감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중다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이 표에 의하면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표 37. 자아정체감이 소속감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중다 회귀분석

변 인	B	SE B	Beta	T	Sig T
대 인 관 계	.049	.066	.042	.734	.464
대인역할기대	.048	.060	.048	.802	.423
독 특 성	.061	.063	.053	.962	.337
자 기 수 용	.200	.064	.171	3.115	.002
안 정 성	-.156	.070	-.128	-2.248	.025
목표 지향성	-.092	.074	-.071	-1.252	.212
자 기 주 장	-.069	.054	-.078	-1.283	.200
자기존재의식	-.180	.063	-.162	-2.872	.004
상 수	3.742	.290		12.908	.000
MR =	.275	R <sup>2</sup> =	.076		
F =	3.757	Signif F =	.000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수용은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정적인 유의함으로 보여주고 있으나, 안정성과 자기존재의식은 부적인 유의함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리고 전체변량의 상대적 설명력은 7.6%(R<sup>2</sup>=.076)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 수준이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결과이다. 또한 자기수용의 정체감 수준이 높을수록 소속감 지지를 높게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안정성과 자기존재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소속감 지지는 낮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4) 자아정체감과 자존감지지

<표 38>은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인 자존감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중다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이 표에 의하면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수용과 자기주장은 0.1%수준에서, 자기존재의식은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수용과 자기주장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자기존재의식은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전체변량의 상대적 설명력은 19.9%( $R^2=.199$ )로 나타났다.

표 38. 자아정체감이 자존감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중다 회귀분석

변 인	B	SE B	Beta	T	Sig T
대 인 관 계	.078	.043	.098	1.818	.070
대인역할기대	.036	.039	.050	.911	.363
독 특 성	.048	.041	.061	1.177	.240
자 기 수 용	.169	.042	.208	4.036	.000
안 정 성	.044	.044	.054	1.005	.315
목표 지향성	.062	.048	.070	1.304	.193
자 기 주 장	.126	.035	.208	3.649	.000
자기존재의식	-.105	.040	-.142	-2.630	.009
(상 수)	1.818	.187		9.700	.000
MR =	.446	R <sup>2</sup> =	.199		
F =	11.100	Signif F =	.000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 수준이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결과이다. 또한 자기수용과 자기주장이 높을수록 자존감 지지를 높게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자기존재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자존감 지지를 낮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5) 자아정체감과 전체 사회적 지지

<표 39>는 자아정체감의 하위변인인 전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중다 회귀분석의 결과이다. 이 표에 의하면 0.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인 자기 수용, 자기주장은 0.1%수준에서, 자기존재의식은 1%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자기수용은 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자기존재의식은 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를 설명하는 전체변량의 상대적 설명력도 12.5%( $R^2=.125$ )로 나타났다.

표 39. 자아정체감이 전체 사회적 지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표준중다 회귀분석

변 인	B	SE B	Beta	T	Sig T
대 인 관 계	.088	.060	.085	1.465	.144
대인역할기대	.056	.055	.061	1.015	.311
독 특 성	.031	.058	.030	.535	.593
자 기 수 용	.276	.060	.261	4.645	.000
안 정 성	-.047	.064	-.042	-.735	.463
목표 지향성	5.773E-04	.070	4.874E-04	.008	.994
자 기 주 장	-.112	.048	-.142	-2.320	.021
자기존재의식	-.233	.058	-.237	-4.048	.000
(상 수)	3.285	.266		12.356	.000
M R = .353		R <sup>2</sup> = .125			
F = 5.937		Signif F = .000			

이러한 결과는 청소년들이 자아정체감 수준이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결과이다. 또한 자기수용과 높을수록 자존감 지지를 높게 갖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자기주장과 자기존재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전반적 사회적 지지를 낮게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V. 요약 및 결론

### 1. 요약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과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었다. 이를 규명하기에 선정된 연구문제는 첫째,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른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의 차이, 둘째,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와 자아정체감의 관계 셋째,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와 사회적 지지의 관계 넷째, 자아정체감과 사회적지지의 관계였다.

연구대상은 1999년 현재 제주도에 소재하고 있는 중·고등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전통음악활동에 참가자 320명과 비교집단인 비참가자 320명을 집락무선표집법(cluster random sampling methods)으로 추출하여 참가자 309명과 비참가자 290명으로 최종 분석자료로 선정된 것은 599명이었다.

본 연구는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과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인구통계학적 특성을 고려하였으며, 전통음악활동의 유무, 자아정체감, 사회적 지지의 측정도구가 포함된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에 관한 설문지>를 구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아정체감을 측정하기 위한 측정도구는 설문지로서 Dignan(1965)의 Ego-Identity Scale을 서봉연(1975)이 번안하여 수정·보완한 자아정체감 척도이며,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대인역할 기대, 자기수용, 자기주장, 자기존재의식, 그리고 대인관계 등 8개 하위항목으로 구성되었다. 사회적 지지의 측정은 Cohen과 Hoberman(1983)이 사용한 대인관계 지각 질문지로서 김정희와 이장호(1987)가 번안하여 표준화시킨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측정도구는 평가적지지, 물질적지지, 자존감지지 및 소속감지지의 4개 하위변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렇게 구성된 설문지는 표집된 학교를 직접 방문하여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에 관한 설문지>를 배포한 다음 응답요령 및 주의사항을 설명하고 자기평가기입법(self-administration method)으로 응답하도록 한 직후 회수하였다.

자료분석은 분석자료로서의 가능성에 대한 선택 검증과정으로서 이중기입 및 무기입한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 후, 분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통계 프로그램인 SPSS Windows 6.1버전을 이용하여 분석 목적에 따라 전산 처리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구체적인 통계기법은 변량분석(analysis of variance)과 공변량분석(analysis of covariance) 그리고 표준 중다 회귀분석(standar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 2. 결론

상기와 같은 방법과 절차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얻은 결론을 다음과 같다.

첫째, 청소년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에 따라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자아정체감의 대인역할기대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대인관계에서 부교육 수준이 낮을수록 높다. 그리고 사회적 지지의 물질적 지지와 평가적지지, 소속감지에는 여자가 남자보다, 가계수입이 높을수록, 부와 모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높으며, 기독교와 천주교가 불교와 무교보다 높다. 또한 자존감 지지는 가계수입이 높을수록 높다.

둘째,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 자아정체감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전체 자아정체감과 안정성, 목표지향성, 독특성, 자기수용, 자기주장은 전통음악활동 참가 집단이 비참가집단 보다 높다.

셋째,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 사회적 지지는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즉 전체 사회적 지지와 물질적지지, 그리고 자존감 지지는 전통음악활동 참가자 집단이 비참가 집단보다 높다.

넷째, 자아정체감은 사회적 지지에 부분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즉 자아정체감의 하위요인인 자기수용이 높을수록 물질적, 평가적, 소속감, 자존감지지가 높다. 또한 자기주장이 높을수록 자존감 지지가 높으며, 자기주장, 자기존재의식이 높을수록 물질적, 평가적 지지가 낮다. 그리고 자기존재의식이 높을수록 소속감, 자존감 지지가 낮다.

이러한 결론에 비추어 볼 때 전통음악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활동은 궁극적으로는 심리적·정서적 복리를 증진시킴으로서 결국 사회적 지지를 강화시키는 가치있는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 관한 연구결과를 보면 그 결과의 도출과정에 대한 사회 심리적 메카니즘 및 인과적 설명을 명쾌하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전통음악 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는 사회·심리적 효과에 관한 이론적 가치를 경험적으로 입증할 만한 연구가 미흡하였고, 전통음악 활동 참가와 사회연결망 및 사회적 지지의 인과관계를 설정할만한 이론적·경험적 근거가 빈약한데서 기인한 결과라 하겠다.

이상의 결론을 종합해보면 전통음악활동 참가가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있어서 전통음악 활동 참가의 양적 측면은 물론 전통음악 활동 참가와 사회적 지지를 매개하는 자아정체감 등의 사회심리학적 측면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사실을 기초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전통음악활동 참가가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동시에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사회적지지 효과에 매우 유의한 영향을 주었으리라 사료된다.

### 3. 제언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과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규명하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연구방법의 절차에 따라 분석결과 전통음악활동 참가유무에 따라서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가 전반적으로 차이 있게 나타났으며, 이들 변인간에 관계가 있다는 결론을 얻었다.

여기서는 연구의 과정과 변인의 설정, 연구의 결과에 대한 연구자의 제언을 함으로써 후속연구에 도움을 주고자 한다.

첫째, 앞으로의 연구를 통하여 규명되어야 할 주요문제 가운데 하나는 선행변인의 설정에 관한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과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던 성(性), 종교, 가계수입, 부/모의 교육수준 등 5개

의 배경변인을 설정하여 연구를 수행한 결과 사회적 지지에는 전반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자아정체감에는 낮은 영향력을 얻었다. 따라서 보다 신중하게 고려하여 적절한 배경변인을 선정한다면 효율적인 결과를 기대할 수 있겠다.

둘째,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에 대한 다양한 연구대상의 문제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과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에 대하여 규명하였으나 연구대상의 선정에 있어서 지역에 국한하여 이루어졌기 때문에 대표성에 있어서 보다 광의적 표집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셋째, 다양한 음악활동에 대한 실증적 연구의 적용이다. 본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전통음악활동에 참가하는 청소년들에 국한하였으나 앞으로의 연구에서는 서양음악 등 음악의 활동 전반에 걸친 다양한 접근으로의 시도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 참고문헌

- 권진미(1997), “농악의 교육적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명숙(1995), “아동의 사회적 지지와 부적응과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문경(1992), “중학생의 합창활동이 인성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미숙(1995), “전통음악 보급의 활성화를 위한 연구”-악기의 활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성곤(1989), 『중학생의 의식구조 연구』 석사학위논문, 단국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성수, 권일남(1994), 『청소년수련활동 지도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김성태(1981), 『발달 심리학』, 법문사.
- 김신일(1993), 『청소년 문화론』. 한국청소년개발원편. 서울: 서원.
- 김우현(1984), 『농악교본』. 서울: 세광음악출판사.
- 김을갑(1997), “중학교 전통음악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중복(1997), “중학생 전통음악교육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석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교육대학원.
- 김형태(1989), “청소년기 자아 정체감의 발달 및 측정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충남대학교 대학원
- 남윤영(1993), “환경이 청소년 의식구조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국민대학교 대학원.
- 문용린(1993), 『청소년 심리학』, 한국청소년개발원편, 서울: 서원.
- 박지원(1985), “사회적 지지척도 개발을 위한 일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 서경희(1996), “합창활동이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서봉연(1975), “자아정체감 형성에 관한 심리학적 연구”, 경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소희(1996), “합창활동이 청소년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 연구”, 석사학위논문  
부산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경주(1997),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사회적지지 및 행동문제”,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성재(1994), 『재미있는 국악길라잡이』 서울: 서울미디어.
- 이순옥(1996), “청소년들이 접하는 음악과 학교음악과의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용일(1979), 『음악교육개론』 서울: 현대악보출판사.
- 이원숙(1992), “사회적망, 사회적 지지와 임상적 개입의 이론적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이원숙(1995), 사회적 망과 사회적지지 이론, 서울: 홍익제.
- 이윤미(1998), “학교 합창단 학생과 일반 학생과의 인성 비교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교원대학교 대학원.
- 이재선(1998), “대학생의 여가 활동유형과 자아정체감 및 사회적 문제해결력의 관계”,  
석사학위논문, 한국체육대학교 사회체육대학원.
- 이학승(1996), “특활 학생의 사회성 및 성격 특성에 관한 연구”- 고등학교 밴드부  
학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 이흥구(1998), “생활체육 참가와 사회연결망 및 사회적 지지의 관계”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 이흥수(1992), 『느낌과 통찰의 음악교육』, 세광음악출판사.
- 장병림(1980), 『사회심리학』, 서울: 박영사.
- 장병학(1994), “청소년단체구성원과 비구성원간의 인성 및 자아개념 비교연구”,

-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교육대학원.
- 장사훈, 한만영 공저(1975), 『국악개론』,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 정하성, 김광수(1987), 『청소년윤리』, 서울: 백산출판사.
- 조요한(1983), 『예술철학』 서울: 경문사.
- 최진아(1996), “아동이 지각한 사회적 지지와 적응능력 사회적 능력”, 박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대학원.
- 추성원(1998), “아동의 스포츠활동 참가와 사회적지지 및 사회적 능력의 관계”,  
한국체육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함종한(1984), 『청소년 학원론』,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 Cassel, J.(1974), Psychosocial processes and Stress: Theoretical formul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Health Service,
- Casel, J.(1976), The contribution of the social environment to host resistance,  
American Journal of Epistemology, 102, 2,
- Caplan, G.(1974), Support system and community mental health: Lectures on  
concept development, New York: Behavioral Publication.
- Cauce, A. M. Felner, R. D., Primavera, J., & Ginter, M. A.(1982), Social  
support in high risk adolescents: Structural components and adaptive  
impact, American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 Cauce, A. M.(1985), Early adolescents' social networks and networking:  
Contributions to social competenc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Yale Univ.
- Cauce, A. M.(1986), Social networks and social competence: Exploring the  
effects of early adolescent friendships, America Journal of Community  
Psychology, 14,
- Cobb, S.(1976), Social support as moderator of life stress, Journal of  
Psychosomatic Medicine,

- Cohen, S. & Hoberman, H.(1983), Positive events and social support as buffers of life change stress, *Journal of Applied Social Psychology*.
- Cohen, S. & Mckay, G.(1983), Social support, stress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In Baum, A., Singer, J. E., & Taylor, S. E. (eds.). *Handbook of Psychology and Health*, 4.
- Cohen, S.,& Wills, T. A.(1985), Stress, support, and the buffering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98.
- Dignan, S. M. H.(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nentyfica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Vol. 1, No 5.
- Dubow, E. F, & Ullman, D. G.(1989), Assessing social support in elementary school children: The survey of children's social support, *Journal of Clinical Child Psychology*, 18(1).
- Erikson. E. H.(1963), 『아동기와 사회(Childhood and Society)』, 윤진, 김인경 역(1968), 중앙적성출판사.
- Erikson. E. H.(1963), *Childhood and Society*, New York: Norton
- Erikson. E. H.(1965), "Identity," psychosocial in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social science, (Mcmillan Company & press, Vol.7,1965, PP.61-65.  
Id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Erikson. E. H.(1968), *Id entity : Youth and crisis*, New York: Norton.
- Erikson. E. H. "The Life Cycle; Epigenesis of Identity" in *Rrading Child Development and Relationship 2nd ed.*,(eds.), C. Smart and S. Smart, New York (Macmillan Publishing Co . , Inc., 1977)
- Furman, W. & Buhrmester, D.(1985), Children's perceptions of the personal relationships in their social networks. *Developmental Psychology*, 21(6).
- Harter, S.(1985), *Manual for the social support scale for children*, Denver: University of Denver.

- Kaplan, B. H., Cassel, J. C., & Gore, S.(1977), Social support and health, Medical Care, 15(5).
- Block. J.(1961), "Ego Identity, Role Variability and Adjustment", Journal of Consulting Psychology, Vol. 25, No. 5.
- Marcia. J. E.(1966), Development and validation of ego-identity statu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 Marcia, J. E.(1967), "Ego Identity Status: Relationship to Change in Self-esteem, General Mal-adjustment, and Authoritarianism", J. of Personality.
- Marcia. J. E.(1976), "Identity Six Years; A Follow-up Study", J. of Youth and Adolescence, 15.
- marcia. J. E.(1980), Identity in Adolescence. In Adelson(ed.), Hand Book of Adolescent Psychology, New York : John Wiley & Sons.
- Margaret, A. L.(1985), Adolescence, New York: Harper & Row Publishers, Inc.,
- Nuckolls, K. B., Cassel, J., & Kaplan, B. H.(1972). Psychological assets, life crisis and the prognosis of pregnancy, American Journal of Epistemology, 95(5).
- S.M.H. Dignan,(1965), "Ego Identity and Maternal Identification", J.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965 Vol. 1, No. 5,
- Thoits, (1982), Conceptual, methodological and theoretical problems in studying social support as a buffer against life stres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 Rousseau, J. J(1762), Emile, 경봉구 역(1994) 서울: 범우사.
- Waterman, A. S(1982), Identity development from adolescence to adulthood: An extension of theory and a review of research, Developmental Psychology, Vol. 18, No. 3, 1982, pp. 341-358.
- William. C. M.(1948), Recreation and Mental Health Recreation, No.2

<부록1>

## 설문지

안녕하십니까?

이 설문조사는 전통음악활동과 사회적 지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응답하신 내용은 연구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에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본 설문조사의 각 질문에는 옳고 그른 것이 없으니, 질문내용을 잘 읽으신 후 한 문항도 빠짐없이 느끼신 대로 솔직하게 대답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응답하신 내용은 통계 처리되어 한 사람 한 사람의 의견은 연구에 나타나지 않으므로 각 질문에 대한 자신의 느낌을 정확하게 표시하여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1999년 4월  
제주대학교 음악교육대학원

정 경 애

☞ 다음 문항을 읽으시고, 자신이 느끼는 정도와 가장 가깝다고 생각되시는 곳에 √로 표시해 주십시오. 응답 요령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 그렇지 않	혀 그렇지 다	대체로 그렇지 않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전혀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1에.....	1	2	3	4	5	
2) “대체로 그렇지 않다”고 생각되시면 2에.....	1	2	3	4	5	
3) “그저 그렇다”고 생각되시면 3에 .....	1	2	3	4	5	
4) “대체로 그렇다”고 생각되시면.....	1	2	3	4	5	
5) “매우 그렇다”고 생각되시면 5에.....	1	2	3	4	5	

다음은 사회적 지지에 관한 문항입니다. 귀하의 느낌과 일치하는 번호에 표시해 주시면 됩니다

	전 그렇지 않	혀 다	대체로 그렇지 않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 주말에 갑자기 여행을 가게 되었을 때 필요한 여비 몇 천원 정도는 쉽게 꾸어줄 사람이 있다.....	1		2	3	4	5
2. 학교생활과 다른 어떤 일 사이에 시간을 배분하는 문제가 생긴다면 이에 대해 마음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주위에 있다.....	1		2	3	4	5
3. 내 친구들은 대부분 자신에게 일어난 일을 다루는데 있어서 나보다 낫다.....	1		2	3	4	5
4. 내가 자취방을 마련하여 이사를 간다면 자기가 쓰던 물건을 나에게 줄 사람이 있다.....	1		2	3	4	5
5. 나는 교회나 서클 등 아무런 모임에도 속해 있지 않다.....	1		2	3	4	5
6. 내가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느낀다면 이에 대해 마음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주위에 있다.....	1		2	3	4	5
7.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보다 더 매력적이다.....	1		2	3	4	5
8. 나는 친구의 집에 자주 놀러 간다.....	1		2	3	4	5
9. 부모와의 관계에서 생기는 문제에 관해 마음놓고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1		2	3	4	5
10. 내가 아파서 결석한다면 그 날의 노트를 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1		2	3	4	5
11. 요즘, 주위에 아무도 없는 듯한 외로움을 느낀다.....	1		2	3	4	5
12. 나에게 이성애 관한 문제가 생긴다면 솔직히 털어놓고 상의할 믿을만한 사람이 주위에 있다.....	1		2	3	4	5
13. 내 친구들은 대부분 내가 유능하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14. 급히 돈이 필요할 때 언제라도 몇 만원 정도는 꾸어 쓸 수 있는 사람을 알고 있다.....	1		2	3	4	5
15. 내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나를 따뜻하게 위로해 줄 친구가 없다.....	1		2	3	4	5

	전 그렇지 않	혀 다	대체로 그렇지 않	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 우 그렇다
16. 내 친구들은 대개 나보다 더 인기가 있다.....	1	2	3	4	5		
17. 내가 필요하다 해도 우리 집에서는 나에게 책값을 대주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18. 내가 원한다면 언제라도 같이 시간을 보낼 데이트 상대가 있다.....	1	2	3	4	5		
19. 내 친구의 대부분은 학교생활을 나보다 잘 보낸다.....	1	2	3	4	5		
20. 내가 급히 병원에 가게 되었을 때 필요한 치료비를 빌려 줄 사람이 내 주변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1	2	3	4	5		
21. 나에게 친구를 사귀는데 문제가 생긴다면 이에 관하여 충고해 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1	2	3	4	5		
22. 나의 장래는 다른 사람들보다 밝을 것이다.....	1	2	3	4	5		
23. 내가 아파서 누워 있다면 학교나 동네에서 병문안을 올 사람이 있다.....	1	2	3	4	5		
24. 갑자기 영화가 보고 싶어졌을 때 극장에 같이 갈 상대를 쉽게 찾을 수 있다.....	1	2	3	4	5		
25. 내가 외롭고 우울할 때 이에 대해 마음놓고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1	2	3	4	5		
26. 내게 주위의 사람들보다 나은 면이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27. 사람들이 함께 무슨 일을 할 때 나를 부르지는 않는 편이다.....	1	2	3	4	5		
28. 요즘 고민거리가 생기면 나 혼자 간직한다.....	1	2	3	4	5		
29. 사람들은 내가 유머감이 있다고 생각한다.....	1	2	3	4	5		
30. 내 주변에는 내가 가진 문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1	2	3	4	5		
31. 나를 알고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나를 높이 평가한다.....	1	2	3	4	5		
32. 몇 시간동안 자기의 시계, 카메라와 같은 귀중한 물건들을 나에게 빌려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1	2	3	4	5		
33. 나에게 약물(예컨대 담배나 술등)에 관한 문제가 생긴다면 이에 관한 좋은 해결책을 이야기해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1	2	3	4	5		

	전 그렇지 않	혀 다	대체로 그렇지 않	다	보통 이다	대체로 그렇다	매 그렇다	우 그렇다
34. 대부분의 내 친구들은 자기자신에 대한 만족도가 나보다 높다.....	1		2		3		4	5
35. 나에게 사람을 대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생긴다면 이에 대하여 마음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다.....	1		2		3		4	5
36. 내 생일을 기억해서 챙겨줄 친구가 없을 것이다.....	1		2		3		4	5
37. 내가 문제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해 잘 평가를 해 줄 사람이 있다.....	1		2		3		4	5
38. 내 주위에는 내가 성취한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람이 있다.....	1		2		3		4	5
39. 중요한 소포를 급히 부쳐야 하는데 우체국에 갈 수 없을 때 나 대신 가 줄 사람이 있을 것이다.....	1		2		3		4	5
40. 내가 아는 대부분의 친구들은 나와 취미가 다르다...	1		2		3		4	5
41. 내 친구들은 내가 그들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별로 도움이 안된다고 느끼는 것 같다.....	1		2		3		4	5
42. 내가 외로울 때면 불러서 같이 이야기할 사람이 있다.....	1		2		3		4	5
43. 학교나 내 주변에 내 시험공부를 돕기 위해 예상 문제 같은 것을 풀어줄 사람이 아무도 없다.....	1		2		3		4	5
44. 내가 원하기만 하면 자기가 보던 책을 선뜻 내게 주는 친구나 선배가 있다.....	1		2		3		4	5
45. 만일 내가 여행을 가고자 하면 언제라도 같이 갈 사람이 있다.....	1		2		3		4	5

다음의 문항은 자아정체감에 관한 물음입니다. 귀하의 생각과 일치하는 곳에 표시해 주십시오

	전 그렇지 않	혀 다	대체로 그렇지 않	다	보 통 이 다	대체로 그렇다	매 우 그 렇 다
1. 장래에 나는 현재의 나와 별로 다르지 않을 것이다.....	1		2		3	4	5
2.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마음을 정할 수가 없다....	1		2		3	4	5
3. 나는 남들이 아무개의 “동생” 혹은 아무개의 “딸”이라고 부르는 것이 싫다.....	1		2		3	4	5
4. 나에게 여자(남자)들이 하는 일들은 대부분 매우 어리석어 보인다.....	1		2		3	4	5
5. 나는 지금의 나에게 대해서 아무런 유감이 없다.....	1		2		3	4	5
6. 나는 다른 사람에게 “아니오”라고 대답하기가 어렵다....	1		2		3	4	5
7. 나는 많은 사람들 틈에 있으면 나 자신을 잃어버린다...	1		2		3	4	5
8. 나는 처음 보는 사람들과 별로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는다.	1		2		3	4	5
9. 나의 장래 일에 대한 결정을 미리 생각하고 싶지 않다....	1		2		3	4	5
10. 나는 내가 보는 나와 남들이 보는 내가 아주 비슷하다고 믿는다.....	1		2		3	4	5
11. 나의 친구들은 내가 언제나 나 자신의 소원하는 바를 의식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한다.....	1		2		3	4	5
12. 나는 내가 보잘 것 없는 존재같이 느껴지는 때가 있다....	1		2		3	4	5
13. 나는 무엇을 하고 싶지 않을 때, 주저없이 그 이유를 말한다.	1		2		3	4	5
14. 때때로 나는 전혀 나답지 않은 일들을 한다.....	1		2		3	4	5
15. 남의 눈에 띄지 않고 군중 속에 파묻혀 있는 것이 마음 편하다.....	1		2		3	4	5
16. 상급학교에 들어와서 나는 달라진 것 같다.....	1		2		3	4	5
17. 나는 언니(형님)를 좋아하지만 언니(형님)와 꼭 같아지고 싶지는 않다.....	1		2		3	4	5
18. 내 친구와 가족들은 내가 여러 가지 일들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잘 모른다.....	1		2		3	4	5
19. 나는 내가 해놓은 일들에 진정한 자부심을 느낀다.....	1		2		3	4	5
20. 반대를 무릅쓰고 싸우는 것보다 내 원칙을 포기하는 것이 더 쉬운 일이다.....	1		2		3	4	5
21. 우스꽝스러운 작은 일로서도 나는 그만 딴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지는 때가 있다.....	1		2		3	4	5
22. 저녁 시간을 혼자 보내야 할 때 나는 대개 일찍 잔다....	1		2		3	4	5

전 혀 대체로 보통 대체로 매 우  
 그렇지 그렇지 이다 그렇다 그렇다  
 않 다 않 다

23. 나에게 대한 지난날의 추억은 지금의 내 모습과 같은 것 같다.....	1	2	3	4	5
24. 나는 내가 다음에 무엇을 하게 될지 전혀 모르겠다....	1	2	3	4	5
25. 나는 대개 선생님들이 나에게서 기대하고 있는 바를 잘 알고 있다.....	1	2	3	4	5
26. 나는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존재가 되고 싶다....	1	2	3	4	5
27. 나는 내 스스로 어떤 일을 결정하려고 하는 때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1	2	3	4	5
28. 때때로 나는 내 자신에게까지도 생소한 존재로 여겨진다.....	1	2	3	4	5
29.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의 있는 그대로를 알아준다....	1	2	3	4	5
30. 초등학교 또는 중학교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는 전혀 같지 않다.....	1	2	3	4	5
31. 나의 삶의 목표는 비교적 명확하다.....	1	2	3	4	5
32. 내 친한 친구들은 나와 매우 다르다.....	1	2	3	4	5
33. 나는 남의 비판에 흥분하지 않는다.....	1	2	3	4	5
34. 중요하지 않는 결정을 내릴때에도 나는 대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묻는다.....	1	2	3	4	5
35. 나는 자 자신을 정말 잘 안다.....	1	2	3	4	5
36. 친구들 사이에서 나는 자신 있게 내 자신을 터 놓고 얘기를 할 수 없다.....	1	2	3	4	5
37. 사람들은 나를 어렵지 않게 잘 이해하게 된다.....	1	2	3	4	5
38. 나의 모든 문제는 내가 무엇이 되고 싶은지를 정말로 모른다는 것이다.....	1	2	3	4	5
39. 나는 친척들이 내가 어머니나 아버지를 꼭 닮았다고 말하는 것이 싫다.....	1	2	3	4	5
40. 우리 부모는 나를 어린애로 취급한다.....	1	2	3	4	5
41. 내가 찬성하지 않을 때 나는 남들이 원하는 대로 따라갈 수 없다. ....	1	2	3	4	5
42. 지난 몇 주일동안은 내 자신이 아니었던 것 같이 느껴진다.....	1	2	3	4	5
43. 나는 대부분의 여자(남자)친구들과 쉽게 개인적으로 친해진다.....	1	2	3	4	5

전	혀	대체로	보통	대체로	매	우
그렇지	않	그렇지	이다	그렇다	그렇다	
않	다	않	다	그렇다	그렇다	

- |  |   |   |   |   |   |
|--|---|---|---|---|---|
| 44. 나는 처음에는 내가 아닌 어떤 사람처럼 되려고 애<br>쓰다가 , 나중에는 또 다른사람처럼되려고 애쓴…… | 1 | 2 | 3 | 4 | 5 |
| 45. 나의 진로를 얼른 선택해야 한다는 말을 들을 때,<br>나는 초조하고 무서워진다.……            | 1 | 2 | 3 | 4 | 5 |
| 46. 남들은 별 어려움 없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안다.……                             | 1 | 2 | 3 | 4 | 5 |
| 47. 내가 여자(남자)라는 것이 나에게 아무런 문제가 되지<br>않는다.……                    | 1 | 2 | 3 | 4 | 5 |
| 48. 나는 내가 아닌 다른 어떤 사람처럼 그려보고 싶다.……                             | 1 | 2 | 3 | 4 | 5 |
| 49. 때때로 나는 나 자신에게 까지도 내가 신비한 존재로 생<br>각된다.……                   | 1 | 2 | 3 | 4 | 5 |
| 50. 나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꺼린다.……                                   | 1 | 2 | 3 | 4 | 5 |
| 51. 내 인생관은 언제나 동일하다.……   | 1 | 2 | 3 | 4 | 5 |
| 52. 나는 가끔 어느 때는 이걸 원했다가 나중에 가서는 또<br>다른 것을 원하고 있다.……           | 1 | 2 | 3 | 4 | 5 |
| 53. 이만큼 성장한 이상 이제 나는 내 뜻대로 하고 싶다.……                            | 1 | 2 | 3 | 4 | 5 |
| 54. 나는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쉽<br>게 알아차린다.……               | 1 | 2 | 3 | 4 | 5 |
| 55. 남들이 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내가 할 수 없다고 해서<br>속상하지는 않다.……             | 1 | 2 | 3 | 4 | 5 |
| 56. 내가 진정으로 목숨을 걸고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을<br>만큼 나는 그렇게 우수하지는 않다.……    | 1 | 2 | 3 | 4 | 5 |
| 57. 나는 현재 중학교(고등학교)에서 초등학교(중학교) 때 만<br>큼 많이 변하고 있는지 않는 것 같다.…… | 1 | 2 | 3 | 4 | 5 |
| 58. 나날이 나는 달라져 간다.……   | 1 | 2 | 3 | 4 | 5 |
| 59. 나는 항상 목표를 정해 놓고 행동한다.……                                    | 1 | 2 | 3 | 4 | 5 |
| 60. 사람들은 가끔 나와 나의 친한 친구를 서로 혼동한다.                              | 1 | 2 | 3 | 4 | 5 |
| 61. 나는 언제나 여학생(남학생)으로서의 나를 생각한다.……                             | 1 | 2 | 3 | 4 | 5 |
| 62. 나는 선생님들 앞에서는 나의 진정한 모습을 보일 수가<br>없다.……                     | 1 | 2 | 3 | 4 | 5 |
| 63. 남들이 나에게서 깊은 인상을 받는 것은 나의 강한 소<br>신 때문이다.……                 | 1 | 2 | 3 | 4 | 5 |
| 64. 이따금 내가 나 자신이 아니라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머<br>리를 스친다.……                 | 1 | 2 | 3 | 4 | 5 |

<부록2>

다음의 각 문항에 대하여 귀하께서 생각하시는 것에 √표 하거나, 적어주십시오.

1. 귀하의 성별은?    1) 남자                      2) 여자
  
2. 귀하의 가계(가족모두)의 월평균 총 수입은 약 얼마이십니까?  
1) 100만원 이하              2) 100-200만원              3) 200-300만원  
4) 300만원이상
  
3. 귀하의 부친의 교육수준은?  
1) 중졸이하                      2) 고졸                      3) 대졸이상
  
4. 귀하의 모친의 교육수준은?  
1) 중졸이하                      2) 고졸                      3) 대졸이상
  
5. 귀하의 종교는?  
1) 기독교              2) 불교              3) 천주교              4) 무교
  
6. 귀하께서 지금현재 참가하고 있는 전통음악활동에 참여하십니까?  
1) 참가                      2) 비참가

😊 끝까지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 ABSTRACT

### The Relationship Between Ego-identity, Social Support and Korean Traditional Music Activity Among the Youth

Kyoung Ae-Jung  
Music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Jung Hee-Kim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Korean traditional music activities and ego-identity, and also social support among the youth. The subjects of this study are selected from Korean traditional music activity participants and non-participants who are the students in middle and high schools located in Cheju.

The survey questionnaire used in this study are EIQ(Ego-Identity Questionnaire) developed by Bong-Yun Suh(1975) and originated from the EIS(Ego-Identity Scale) by Dignan(1965) and ISEL(Interpersonal Support Evaluation List) developed by Cohen and Hoberman(1983) and standardized by Jung-Hee Kim and Jang-Ho Lee(1987). The collected data are analyzed by SPSS(MS Windows Version 6.1) using statistical methods such as analysis of variance, analysis of covariance and standard regression analysis.

Following conclusions have been obtained from the analysis.

First, ego-identity and social support are partially different according to the socio-demographic characteristics of youth's. In detail, male gets higher perceive than female in interpersonal role expect. Fathers in lower education level get higher perceive than fathers in higher education level about

interpersonal relationship. Social support in material and appraisal support appears higher in male than female, in higher income group than in lower income group, in higher educated parents than lower educated parents, and in Catholic and Christian than buddhist. Self-respect support appears higher when income is higher.

Secondly, ego-identity is appeared partially different when the youth are participating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activity or not. Namely,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activity participants are higher than non-participants in ego-identity, stability, self-acceptance, self-insistence, etc.

Thirdly, social support is also appread partially different when the youth are participating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activity or not. That is, the korean traditional music activity participants are higher than non-participants in social and material support, and self-respect support.

Fourthly, youth's ego-identity partially influences on social support. Precisely, the self-acceptance which is in lower level factor of ego-identity appears higher in material support, appraisal support, belongingness, and self-respect. Self-respect is higher if self-insistence is high. Material and appraisal support is lower if self-insistence and self-existance are high. And also, belongingness, and self-respect appears lower when self-existance is high.

---

\* This thesis 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August, 1999.

## 감사의 글

본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세심한 지도와 용기를 주신 김정희 지도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구수행 중에 날카로운 지적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전지현 교수님, 박순방 교수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정신적·학문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 해주신 제주대학교 음악학과 여러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연구 디자인 및 통계분석과정에서의 강효민 박사님, 자료수집 과정에서 많은 도움을 주신 제주도내의 음악교사 동료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999년 7월

정 경 애